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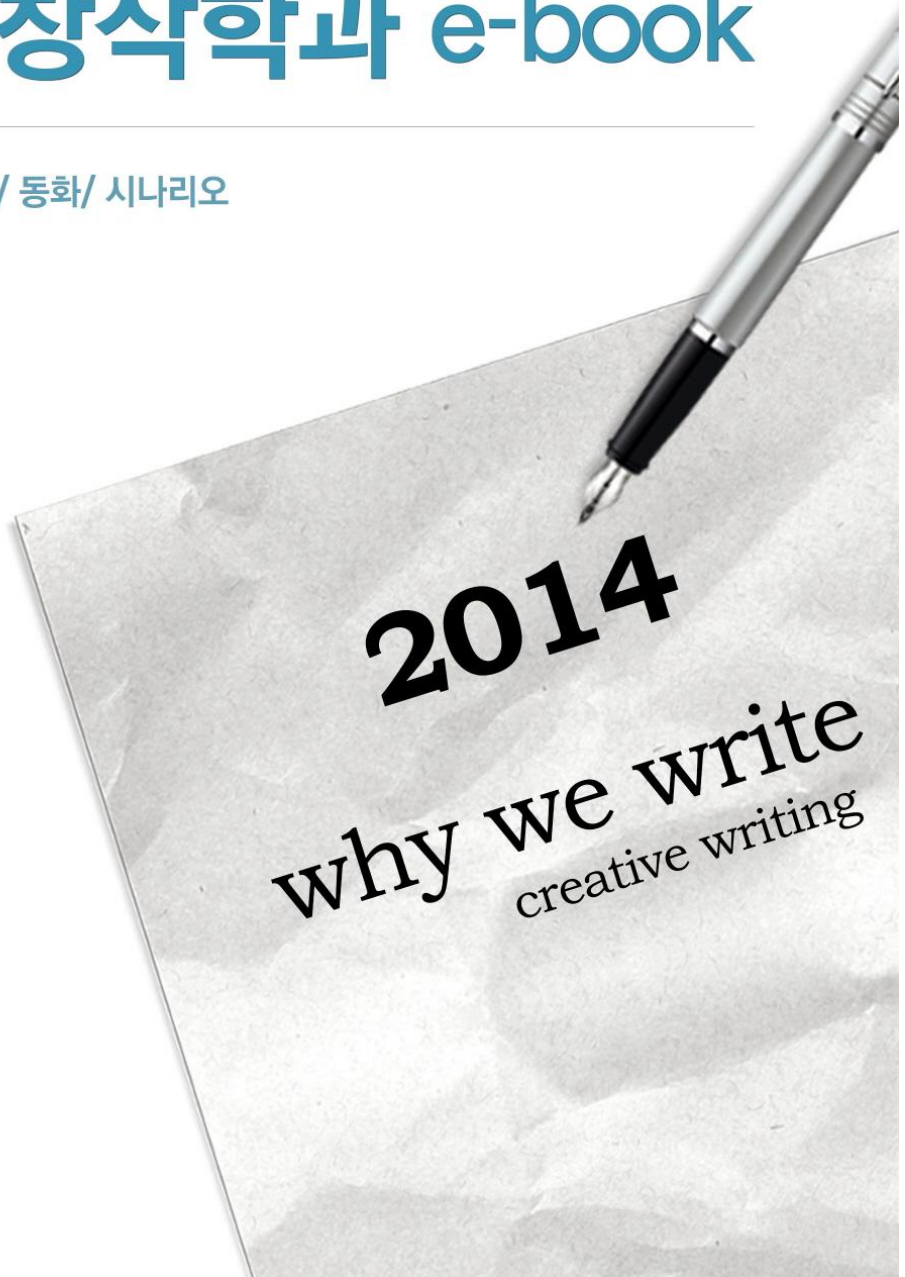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사이버 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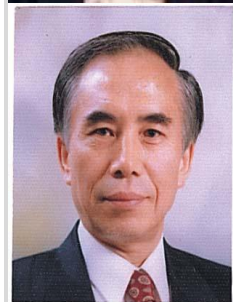
문예창작학과 e-book

수필/ 시/ 소설/ 동화/ 시나리오

학생작품 모음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등단자



목차

◇ 수필

김경식	뒤센미소
노정숙	나를 받아주세요
유시경	시숙의 잔
이천호	소욕지족으로 행복만들기
임도순	자유사상과 선인장

◇ 시

곽도경	운홍사/ 동자꽃/ 양파
김경숙	곡비/ 눈물무늬 찻잔/ 종점에서 두시간
김상률	화평선/청보리 / 산다는 것/ 나는 귀족노동자
유원희	별을 파는 여자/ 올해의 레시피/ 땅의 귀
정혜선	오만칠천원/ 바람의거리/ 노트북에 얹드려 잠이 들었네

✧ 소설

김유철	연인
예시원	하늘아래 첫 단감
허 빈	저녁노을

✧ 동화

김명자	쿵쿵쿵 언덕의 비밀
이수린	옥상 위 옹달샘

✧ 시나리오

김수민	연애의 시작
김추산	어린왕자는 왜 자기별로 돌아갔을까?





수필동아리 <수수밭>
지도교수: 임헌영 교수님

☆ 수필

뒤센미소(Duchenne's Smile)

김경식

뒤센 미소(Duchenne's Smile)라는 단어가 있다. 프랑스 신경학자 기욤 뒤센이 사람이 활짝 웃을 때 광대뼈와 눈꼬리 근처의 근육이 움직여서 만드는 진짜 웃음을 발견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명칭이다. 과연 웃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폴 애크만과 동료 교수들은 뒤센 미소에 대해서 여대생 71 명을 상대로 두 가지 방식으로 웃는 걸 구별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한 그룹은 활짝 웃는 뒤센 미소 그룹이고, 다른 그룹은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팬암 미소 (Pan American Smile) 그룹(유명했던 팬암사의 스텐디스들이 공식적으로 우아하게 웃는 미소)이었다. 30 년 동안 여대생들을 추적한 결과는 놀라웠다. 활짝 웃은 뒤센 미소를 한 그룹이 행복, 건강, 수입 등 모든 면에서 나왔다고 한다.

2 년 전, 나는 뒤센 미소를 가진 얼굴을 만났다. 서울국립재활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서울행 기차를 타기 위해 김천역으로 갔다. 전날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권한 무궁화호 기차 탑승권을 A 역무원에게 보여주며 도움을 청했다. 탑승권을 살펴보던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나에게 말했다.

“이 기차는 장애인석이 없는데요.”

나는 기차 탑승권을 인터넷으로 처음 끊어 본데다 무궁화호 기차에 장애인석이 없는 줄은 미처 몰랐기에 참으로 난감했다. 기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이 기차를 놓치면 예약시간까지 병원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불편하더라도 좌석에 앉아 가려고 염치 불구하고 업어서라도 태워달라고 그에게 통사정을 했다. A 역무원은 나에게 미소를 짓더니 어디론가 급히 무전기로 연락을 하였다.

잠시 후, S 역무원이 찾아와 A 역무원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그들의 얘기가 고스란히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저분을 제가 업고 기차에 태우겠습니다."

“뭐? 저 사람을 업어주다가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결국 그런 일은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절대 도와주지 마라!”

과거에 장애인을 기차에 태우려다 장애인이 다친 일로 크게 곤욕을 치른 일이 있는 것 같았다. 그 일로 징계를 받은 역무원의 입장은 충분히 그럴 만 했다. 하지만 다짜고짜 기차에 태워주지 못하겠다고 딱 잘라 거절하자 나는 절망감이 들었다. 나는 S 역무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2 년 전에도 서울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느 역무원이 저를 업어서 기차에 태워주었거든요.”

내 말을 잠자코 듣던 S 역무원은 뱀처럼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때 그 역무원은 도와주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기차가 역 안으로 진입하자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마침 동행하던 어머니가 있어 나를 어떻게든 업고 기차에 탈 테니까 S 역무원에게 휠체어라도 운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는 바쁘다며 일인지하에 거절했다. 아예 책임질 일을 안 하려는 게 분명해보였다. 언성까지 높여가며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기차는 떠났다.

KTX 를 알아보니 김천구미역이 따로 있어 택시로 30 분은 가야만 했다. 다음 기차로는 제 시간 안에 병원까지 가지 못할 것 같았다. 속상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A 역무원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저야 당장 그 기차를 태워주고 싶었지만 저쪽 담당자(S 역무원)가 극구 안 된다고 하니 안타깝지만 별 수 없네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내가 기차를 놓친 일에 대해 A 역무원이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계속 나왔다. 그러자 그분이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더니 뜻밖에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었다.

“저는 지금 대장암 3 기예요. 의사가 살날이 6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 항상 웃으면서 살려고 노력하다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하루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손님께서 화가 나시더라도 부디 이해해주세요.”

시종일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묻는 말에 친절하게 대답하는 그분을 보니 화난 표정으로 있던 내가 오히려 미안했다. 부탁하는 입장에서 나는 왜 그분처럼 못했을까.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간 기분이 상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인상을 쓰며 앞뒤 분간 없이 화내곤 하였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내 얼굴이 화끈거린다.

나와 대화를 하던 A 역무원이 뭔가 생각이 났는지 나에게 잠시만 기다리라면서 어디론가 급히 달려갔다 돌아왔다. 알고 보니 내가 집에 올 때는 장애인석이 있는 무궁화호 기차 시간표를 뽑아서 일일이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나에게 건네주는 것이었다. 그분의 진심 어린 배려가 고마웠다. 덕분에 집에 올 때는 장애인석 기차를 확인하고 예약을 할 수 있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 아닌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얼굴에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찡그린 얼굴을 하면 나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까지 불편하게 한다.

만약 그때 S 역무원의 거절에도 내가 초연하게 웃는 얼굴로 부탁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나의 부탁을 한번쯤 들어줬을지도 모른다. 내 입장만 내세우며 도움을 청하면서 그와 같이 화를 내고 못마땅해 했으니 아마 나라도 더욱 도와주기 싫었을 것이다.

그때 일을 계기로 나는 여생을 조금 기분이 상거나 화난 일이 있더라도 A 역무원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했다. 나는 지금도 그분의 뒤센 미소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



김경식

1982년 11월 26일 경북 김천 출생

2014년 2월 한국산문 등단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과 재학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수필

나를 받아주세요

노정숙

나 삼문 벼랑에 섰습니다.

내가 먼 곳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 중에는 왜 하필 바쁜 시간에 부고(訃告)냐며 투덜대는 이도 있을 테고, 잠시 추억을 더듬으며 가슴이 저릴 사람도 어찌다 있겠지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철든 후 내 생은 눈치보기의 연속이었지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어림없는 일이지요.

내가 떠나는 자리를 찾은 벗에게 두 번의 절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나처럼 슬쩍 웃고 있을 내 영정사진을 보며 혀를 차는 대신 함께 씨익 웃어주길 바랍니다. 축제 같은 이별식이면 더 좋겠습니다. 잔잔하게 읊조리는 연도나 성가가 들린다면 황송하면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병 없이 앓는 날이 길어지면 장롱이며 서랍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내보내야 하지요. 산 사람의 물건은 숨이 붙어 있지만, 죽은 자의 것은 주인이 먼 곳을 떠나는 순간 함께 숨을 놓지요. 책임며 웃가지며 쓸 만한 것은 서둘러 새 주인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오래 쓴 물건에도 혼이 깃드는 것을 느끼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새 주인과 정이 들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말년에 어머니는 계절이 바뀌면 성급하게 없앤 물건들을 다시 장만해야 했지요. 그때 필요한 것이래야 보온을 위한 옷가지 정도였지만요. 지나치게 깔끔했던 어머니의 뒤처리를 보며 눈 흘기던 게 어제일 같습니다. 우리집은 제사가 많아서인지 자주 시루떡을 했는데 네모반듯한 것은 모두 이웃에 나누어 주고 식구들은 귀퉁이 세모 조각만 먹었지요. 어머니 심부름으로 음식바구니를 들고 동네를 도는 일은 재미있었지요. 그러나 이런 어머니가 마냥 좋지는 않았습디다. 나는 내 살림을 하게 되면 나만을 위해 살리라 다짐했지요.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요.

좋은 것은 다 나누어주던 어머니는 마지막 육신까지 가톨릭의과대학에 기증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은 정리할 것도 없었지요. 내게 남은 것은 어머니가 손수 짠 삼베 훌이불과 풀물 들인 명주 목도리가 고작입니다. 나 역시 딸에게 물려줄 게 변변찮아 눈흘김 당할 건 뻔한 일입니다.

받아주세요. 숨을 놓은 내 육신을 바칩니다. 살아서도 한가롭지 않은 내 삶은 죽어서도 분주할 것 같습니다. 많이 혹사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쓸 만한 두 눈을 굳어지기 전에 누군가에게 얼른 주겠습니다. 무방비로 열어두었던 두 귀는 지니고 가렵니다. 늘 열어 놓았지만 제 몫을 했는지는 자신 없습니다. 다만 순명을 다하는 귀의 자세를 깊이 새기기 위해서 곱게 거두어 가려합니다. 다 쓰지 못한 뇌는 그대로 반납합니다. 한 번도 명석한 적 없이 궁리만 무성했지요. 제대로 견져 올린 건 없지만 참으로 빠센 노동을 했습니다. 때때로 머리와 엇갈리는 의견에도 잘 버텨준 가슴이 대견합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서인지 어깨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자주 칭얼대던 오른쪽 어깨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내 등뼈는 일찍이 위엄을 버렸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쌓인 피로로 근육이 꼬인 적도 많았지요. 힘에 부친 맘머느리질을 오래하면서 저절로 비굴해졌습니다. 부실한 대로 기꺼운 머리를 겨우 엮고 있는 긴 목은 늘 기울어 있었지요. 마음씨 후한 선배는 내 자세를 보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겸손의 표징이라고 했지만 실은 가당찮은 얘기지요. 들끓는 속내를 생각하며 들키지 않았음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매스라고하나요 그 버린 칼로 가슴을 열 때 조심하세요. 늘 대책없이 두근대던 심장 동네에서 아우성이 들릴지도 모르니까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웅얼거림이 가득할 거예요. 그곳은 아직 연륜이 만들어 준 빗금을 새기지 못했거든요. 수많은 잡것들을 걸러내던 콩팥이며, 쉬지 않고 흐르던 대동맥이며 내동정맥은 오래된 고단함에서 비로소 해방될 것입니다.

포르말린에 잠겨 퉁퉁 불은 나의 몸은 몇 번 더 남은 할 일을 위해 대기할 것입니다. 끝으로 신참 의학도를 맞을 것입니다. 실습실 해부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 뼈와 내장이 무사히 해체되고 그들에게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사이사이에서 흘러나올 내 한숨과 눈물이 마지막 부끄러움을 씻어주길 꿈꿉니다.

저기, 삼문 너머 어머니의 모습이 환합니다.



노정숙

2000년 <현대수필> 등단

수필집 : 『흐름』, 『사막에서는 바람이 보인다』, 『한눈팔기』

아포리즘 에세이: 『바람, 바람』 (2013년 우수문학도서)

제 5회 <한국산문작가상>, 제 9회 <구름카페문학상> 수상

<현대수필> 편집위원

◇ 수필

시숙의 잔(盞)

유시경

술 한 잔 대적하지 못하는 내가 처음으로 주도(酒道)를 알게 된 것은 임신 팔 개월 무렵이었다. 청량리 미주상가 뒷골목에서 남편과 월 오만 원짜리 문간방에 세 들어 살 때 태백에서 광산 일을 하시는 둘째 시숙이 올라왔다. 처서가 오기 직전, 팔월 삼복더위가 한창 절정에 이르다가 밤이 돼서야 푸르르 꺾이고 마는 나날이었다. 나는 민소매의 얇고 새파란 꽃무늬 임부복을 입고 있었는데 시숙은 보기에다 무척 시원해 보이는 고의적삼을 입으셨다. 삼베인지 모시인지는 모르겠으나 탄탄한 흥근이 슬쩍슬쩍 내비치는 여름한복에 백고무신을 신고 종이 합죽선을 쥔 모습이었다.

날줄과 씨줄의 성근 짜임새가 선명하니, 시숙의 까맣게 그을린 피부가 샛노란 바지저고리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으면서도 잘 어울렸다. 그것은 또 타령을 하는 저잣거리의 광대마냥 익살맞으면서, 역으로 권력을 지닌 향간의 양반네들처럼 그 위세가 당당해보이기까지 하였다.

백면서생(白面書生)인지 한량인지 딸깍발이 샌님인지 아니 그도 저도 아닌 탄광촌의 노동자인 시숙을 정중히 모셔야 하는데, 나는 그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은 달아오르며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했다. 이제 두 달만 있으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뜬금없이 찾아온 시숙이 나는 진실로 마뜩찮았다. 부랴부랴 우동집 일을 끝내고 들어온 남편은 형님과 아내를 데리고 청량리 바닥에서 가장 맛 좋고 규모가 크다는 갈빗집으로 갔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원 없이 돼지갈비를 뜯었다. 술 꺾이 모자라도록 형제는 잔을 부딪쳤으며, 누가 먼저 취하느냐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내기라도 하듯이 술을 주문하였다. 소주잔에 코를 댈 때마다 알코올의 독기가 병원 응급실의 그것인 양 소독약으로 인식하는 이 몸쓸 놈의 감각 탓에 그들의 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다. 그 향기도, 맛의 구체성도 모를 주정(酒精)의 매혹을 누구는 댕앞에 댕힌 이슬방울이니 누구는 쓰디쓴 사랑의 묘약이니 누구는 고통을 잠재우는 독약이니 황홀한 마약이니 찬양하며 물마시듯 하는 이들이 신기할 정도였으니까.

몇 시간이 흘렀는지 두 남자는 탁자를 짚고 일어나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휘청거렸다. “어어, 어어.” 하며 종업원 한 명이 다가와 그들을 부축하였지만, 형은 오랜만에 골육지정(骨肉之情)에

젖었는지 훌훌 웃으며 아우의 어깨를 감싸다가 그만 출입문을 붙들고 쓰러지고 마는 것이었다. 비틀거리는 두 거구 사이에서 그만 할 말을 잃었다.

우리 세 사람은 신혼 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남편은 내게 술상을 봐오라고 명했다. 먼 곳에서 형님이 오셨으니 이 밤이 짧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 만고의 시름을 술독에 담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인간세계로 되돌아가길 거부하는 주선(酒仙)들에게 나의 주특기인 술국을 만들어내었다. 김치와 두부와 어묵을 기름에 들들 볶다가 식초 한 방울과 설탕 한 수저를 넣고 건더기가 최대한 부풀어나도록 끓이는 것인데 초라한 신혼의 주안상에 그보다 훌륭한 안주는 없었다.

시숙은 내게 술 한 잔만 따라주면 안되겠느냐며 엄숙히 요청하였다. 나는 주법을 배우지 못해서 따를 줄 모르노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두 손으로 잔을 받쳐 들곤 "제수씨가 따라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겠노라며 빈 잔을 더욱 높이 치켜 올리는 것이었다. 남편의 눈치가 따끔해지자 나는 할 수 없이 소주병을 들었다. 술은 채울 수 있을 만큼 잔을 채우다가 기어이 주둥이 밖으로 새고 말았다.

"고만, 고만. 보래요 제수씨요, 고만 따르드래요." 엉거주춤하니 무릎을 세우며 당황해하는 시숙의 언동(言動)과 동시에 그만 술이 철철 넘치고 만 거였다. 그날 나는 처음 알았다. 술병은 절대 왼손으로 잡아선 안 되고, 술을 따를 때는 안주를 오물거려서도 아니 되며, 술잔을 받을 때 말을 삼가야 하고, 술은 반드시 술잔의 칠 할을 채워야 하며, 술은 하늘이요 안주는 땅이라 그 이치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로부터 스물다섯 해가 지났다. 시월의 마지막 날을 이틀 앞두고 시숙의 영면 소식을 들은 우리 가족은 새벽길을 밟으며 동해로 향했다. 남편은 차를 멈추고 '바다가 보이는 휴게소'라 부제가 붙은 동해휴게소의 전망대로 올라갔다. 동그랗게 차오르는 물거품. 한스럽고 먹먹하기 짝이 없는 가슴을 파도와 달빛에게 푸념하듯 늘어놓는 소리가 들렸던가.

바람이 울먹이는 아이처럼 시숙이 잠든 장례식장의 유리창을 단단히 움켜쥐곤 두드려댔다. 한소끔 또 한소끔, 곡소리가 들릴 때마다 순박한 빗방울이 나뭇가지 틈새를 타고 흘러내렸다. 가을 나뭇잎들은 붉은 눈으로 더 크게 흔들리며 아우성을 쳤다. 검은 상복을 입은 조카딸들과 아들이 제 아버지의 영정을 묵언(默言)으로 마주하고 앉았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상주(喪主)의 표정은 애처로우나 담담했고 동서는 "이제는 미워서 더는 울지 않겠다" 며 부르짖었다.

염습과 입관을 마치고 난 뒤 제상에는 맑은 술 대신 소주가, 향불 위론 시숙이 애용하던 담배 한 대가 놓였다. 지난 세월 내내 나는 방랑의 시숙을 사랑하지 못하였다. 무릎을 꿇고 머릴 숙이고 앉아, 음률을 타며 제문을 읽는 이의 소릴 들으니 나는 또 시숙과 화해하지 못한 일이 내내 억울해지고 마는 것이다.

병실을 관통하는 주삿바늘처럼 슬픔에도 면역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비애를 다스리는 저항능력이라니, 선천적이라면 모를까 세상 어디에도 그런 면역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또한 시숙에게서 배운 '군자(君子)의 주작(酒酌)'이란 게 대체 무엇에 쓸모

있으랴. 절주(節酒)가 어디 생로병사를 조절하고 지배한다던가. 한 세상 애증의 관계조차 다 거두지 못하고 작별하고 마는 인간사 아니런가. 흐르도록 따르고 넘치게 사랑하여라. 그 고통이 손등과 소맷부리를 적시고 한삼자락 밑바닥으로 줄줄 새어나갈지라도.

검은 넥타이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드는 형제의 눈물이 또 내 마음을 강타한다. 영정 속의 시숙은 그때처럼 웃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쏟아내고 또 붓고. 마시는 이 없이 받기만 하는 잔속의 술은 넘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나는 작별의 인사도 없이 가버린 시숙 앞에 술잔을 바칠 수가 없다. '치주안족사(卮酒安足辭, 한 잔 술은 사양하고 말 것도 없음을 일컬음)'라 하였던가. 내가 어찌 시숙이 원하는 첫잔을 마다할 수 있을까.

"제수씨요, 애정이 너무 넘치십니다. 고만 따르드래요."

나무로 된 술잔의 곡선을 타고 뭔가 자꾸만 흘러내리고 있는 거였다.

- <현대 수필> 2013 년 봄호, <선수필> 2013 년 여름호 게재-



유시경

1967 년 전북 남원 출생

2010 년 한국산문 등단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한국산문 회원, 군포문인협회 회원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수필

소욕지족으로 행복만들기

이천호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개탄의 소리가 높다. 인성이 실종된 사회, 오직 돈 만이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세상이다. 돈의 고지를 먼저 정복하려는 경쟁으로 너 나 없이 피곤하다. 남자 여자가 함께 벌어들이는 맞벌이를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어야 할 것이고 선진국에 가까워지면 경제적인 풍요는 물론이고 더 인간세상다워져야 할 것인데 오히려 반대의 현상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인류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선진국,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발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언젠가 박범신 소설가가 부탄이라는 나라를 여행하는 걸 TV 에서 본 일이 있다. 그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산업도 발전하지 않고, 선진국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임에도 국민의 대다수가 행복하다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90%가 넘는다고 한다. 그 나라는 히말라야 산맥속의 나라로서 경사가 급한 언덕배기를 걸어서 올라 다니는 오막살이, 허름한 집에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생활임에도 행복해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찾아서 열심히, 자녀들을 과외도 시키고 쪼들림에 허덕인다. 산업화가 이루어진, 경제가 발전한 덕택으로 굶주림을 해결했고, 초가집이 아파트로, 뒷간이 화장실로, 오솔길이 고속도로, 소달구지가 자동차로, 파발마가 스마트폰으로 발전 하였으나 행복감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절약한다 해도 그전처럼 효과적인 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절약을 하다 보니 절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자기가 절약 한다고 해서 절약하게 그냥 놔두고 보는 세상이 아니다. 언제나 내 주머니에 돈이 남아나게 놔두지를 않는다. 호시탐탐 내주머니 돈을 노리는 게 이 사회이니 여간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는 빈 주머니로 되기가 십상이다. 또 한편은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가 윤기 나게 살아가는 데 나만이 궁상맞게 절약이니 검소니 한다는 게 마뜩하지 않아 이웃의 수준에다 맞추어 살아가려니 벅차다.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 흉내를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살림에 주름이 생겨 여유를 얻을 수가 없다. 현대는 많이 벌기도 하지만 번 것 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생활방식이다. 아니 빚을 내서라도 남과 같이 소비의 수준을 맞춘다. 그 가운데에 과소비가 있고 과도한 육식, 과도한 문화생활, 과도한 해외여행, 과도한 자녀교육, 과도한 안락, 과도한 외식, 과도한 승용차,

과도한 주거 공간, 과도한 사치 등으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일 수이다. 특히 살이 너무 쪼살을 빼는, 살과의 전쟁, 과도한 육식과 영양으로 인한 온갖 질병, 산업사회가 만들어 낸 결과물들이다.

산업사회가 되기 이전에는 소욕지족이라는 생활지침이 유효 했었고 또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었다. 소욕지족의 실천방법이 바로 근검절약인데 지금 이런 생활패턴은 누구도 마뜩잖아 한다. 더구나 현대는 글로벌 시대이고, 머리를 쓰고 발로 뛰면 돈은 생기는 것이라는 관념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근검절약이라는 말은 외향적, 적극적이지 못하고 내부 지향적, 소극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젊은이들이 싫어한다. 그렇지만 절약의 정신은 필요하다. 자기의 훈수를 지켜 근검절약함으로써 지출을 줄이는 소욕지족을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현대의 화두인 자연보호나 환경보호를 이루어 내기 위한 기본바탕이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 갈 세상을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규태의 글에 보면 우리보다 선진국인 영국이나 독일 등 게르만민족 사이에서는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소비 철학, 예를 들면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할 때 손바닥이 잠길 정도의 물만을 떠서 쓰도록 한다든지, 수세식변기를 자녀들이 사용할 때 배설시간을 동시에 함으로써 물을 절약한다든지, 10 인이 먹을 때는 8 인분만을 준비하여 음식찌꺼기를 남기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 등의 근검절약이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으로 생활화 되어있다고 한다. 이러한 소비절약의 정신을 '알파고니 줌' 이 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소욕지족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애들에게 절약을 가르치지 않는다. 맛벌이 부부의 자녀는 제 멋대로 소비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절약이 생활화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산업화이전에는 쌀 한 톨이라도 수채로 흘려버리는 것은 금기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음식쓰레기로 낭비되는 것이 한해에 20 조원임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들의 소비생활엔 문제가 있다. 이 세상에는 굶어 죽는 아이들도, 어른도 많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약의 기풍을 세워나가야 하고 자녀들에게 절약하는 정신을 철저히 심어주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낭비가 죄악임을 인식해야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음식물 낭비가 문제로 대두된 지가 여러 해가 흘렀음에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너 나 없이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다. 우리나라가 다행하게도 수출이 잘 되어 외화를 벌어들여 곡물을 수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평평 소비하고 낭비 까지 한다, 세계의 빈곤층이 소비해야할 몫을 우리가 낭비함으로써 그들의 굶주림을 심화시키고, 아사자가 늘어가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 모두 근검절약을 실천해야할 때가 되었다. 음식찌꺼기 없애기 운동, 과식 안 하기운동, 육식을 줄이기 운동, 수도물 절약운동, 전기 절약운동, 세 정거장은 걸기 운동... 등, 나는 검소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한다. 버스 세 네 정거장은 걸기로 한다. 가능한 한 육식을 지양하고 채식을 한다. 포식하지 않고 보통의 양으로, 보통의 맛으로 보통의 값인 3~5 천원으로 점심이 된다. 설탕은 어느 경우에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구들과 외식할 때도 남김없이 먹을 만큼만 시킨다.

실내온도는 17 도로 유지하고, 내의를 입고 더 추우면 잠바도 입는다. 팩스용지는 재활용한다. 집에서 샤워를 하고 머리는 한 달에 한 번 7,000 원이면 깎는다. 초이스 커피 한 병에 11,000 원인데 9 개월을 먹는다. 소식을 생활화 하고 끼니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그리하면 병원 다닐 일이 없다. 맹물 세수, 맹물샤워를 원칙으로 한다. 일 년 내내 세수 비누 한 장이면 된다. 휴지는 사용단위를 두 칸으로 한다. 전기절약 가스절약을 생활화 한다. 등산은 별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돈이 부족하지 않다.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는 먹지 않는다. 검소하게 사는 것이 부끄럽거나 기죽을 일이 아니다.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애 쓸 일이 아니다. 우선은 돈으로 쪼들리지를 안는 것 한 가지는 해결되는 것이니 그만큼 행복에 접근 했다고 할 수 있다. 많이 벌어도 더 많이 쓰다보면 항상 부족하고 주머니가 비기 쉽다. 행복을 뺏어가는 도둑을 내가 지켜야한다. 남을 원망할 일, 남을 탓할 일이 없다.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줄이는 것이 바로 소욕지족이다. 근검절약만이 경제적인 여유를 얻을 수 있는 첩경인 동시에 행복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지금부터 작은 행복을 향해서 용감한 발걸음을 내 딛기를 제안한다.



이천호

한국산문 2013 등단

한국산문작가협회회원

서울디지털대학문창과 재학중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수필

자유시장과 선인장

임도순

내가 사는 목포에는 자유시장이 두 군데 있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자유시장은 드디어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를 갔다. (새로 지어졌다하지만 벌써 이십 몇 년 이 지난 일이다.) 번듯한 철근블록으로 구획된 가게를 소유할 만큼 돈이 넉넉한 상인들이 그렇게 문패를 들고 옮겨갔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 여전히 노천의 자유시장이 남아 있어 그렇다. 새로운 자유시장은 그런대로 현대의 모습을 갖췄지만 예전의 이 시장은 가진 것을 모두 내주고 빈 몸뚱아리만 남은 어떤 존재처럼 느껴졌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어미의 모습이 이럴까. 어려운 세월을 이겨낸 짐승이 무거운 몸피를 벗은 후 새롭게 돋은 핏줄을 위험하게 드러낸 모습이 이럴까. 시청단속반원들에게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시골 보자기와 다라이 장사치들이 긴장된 흥정의 세상을 이루고 있었다. 두려운 눈빛으로 펼쳐낸 희망 덩어리들은 그만큼 기대감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은 어느 목적에 맞는 것을 찾으려고 바쁘게 지나가고, 여유를 가장했던 상인들은 원하는 물건을 재빠르게 건네기도 한다. 웃음도 빠르고, 게으름도 태연했다. 목포역을 둘러친 돌담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도심을 관통하는 큰 도로가 나기 전까지 당분간 시장의 형태를 간직할 이곳에서도 유럽의 여행거리에서나 느낄 수 있는 올리브기름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인근 무안지역의 아낙네들이 새벽버스를 타고 가져온 쪽파와 마늘과 고구마 같은 농산물들이 보자기위에 펼쳐져 있고, 선창가의 소형어선들이 잡아 올린 조기, 갈치, 게와 소라 등이 좌판위에 놓여 있었다. 이 노천에서 열리는 시장에는 육지의 모든 향기와 바다의 소란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어떤 연유로 붙였을 '자유'라는 신성한 깃발대신에 '시장상인협회'라는 플래카드가 봄비에 젖고 있었다. 어느덧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소위 법과 제도라는 간섭과 이로부터 생활을 지키려는 상인과의 틈새에서 시장은 거친 숨을 내쉬며 확장과 축소를 거듭하고 있었다.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인도를 버젓이 점령하여 물건을

내어놓지만 서해안 개펄의 물길 같은 소리가 재미있고, 마이크를 이용한 완도산 전복 판매가 큰 목청을 대신하여 규칙적으로 거친 호흡을 토해내고 있었다. 사다리 표식의 하얀줄이 처진 횡단보도의 교통섬에까지 지리산의 침차가 올라가 있다. 커다란 체인블록으로 뽑아내야할 것 같은 드렁침이 거인의 팔뚝만큼 굵었다. 상인들의 세력 확장이 밀물이라면 민원해결과 질서회복을 외치는 단속반원들은 썰물을 강조하였다. 새벽에 떠나야 할 선박이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며 표류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러한 시장에서 생활의 활력을 찾는 것은 미래의 희망을 부르는 힘의 원천이 그곳에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비구름 위에 해가 있는 오전이지만 새벽의 기운이 감도는 광장에는 어떤 규정된 원칙이 없는 질서가 대양의 해류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이처럼 위험한 자유시장은 부산하면서 젖은 활기로 넘쳤다. 마치 신체 각부의 장기가 몸주인의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저마다 생기를 품고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다. 꿈틀대는 내장덩어리 같은 행렬, 부풀어 오르는 폐와 간과 위장덩어리 같은 떡집과 생선가게와 그릇 파는 점포, 그것들을 억누르는 갈비뼈 같은 가드레일, 조그만 좌판은 용털돌기가 되어 끊임없이 섬모활동을 하고, 물건 값을 흥정하고 돌아서는 사람과 그 사람을 부르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커다란 팔죽 통을 밀고 다니며 상인들에게 팔죽을 파는 상인, 갓 구운 제과점 빵을 커다란 우산 밑에서 진열하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번쩍번쩍 경광등을 켜놓고 그 거대하게 분열하는 생체조직을 비에 젖어가는 우의 속에서 승냥이처럼 바라보고 있는 단속공무원들. 바로 그들 가까이에서는 양화, 매화, 진달래들이 늘어서 있었다. 각기 다르면서도 통일된 활기가 넘치는 곳. 이 새벽시장은 밤새 어두운 기억과 불안을 털고 일어서는 검은 짐승은 아닐는지.

프랑스대혁명시절 영국의 '윌리엄 고드윈'은 군주제와 귀족정치를 서민 생활의 억압기관으로 보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가장 원초적인 도덕원리를 강조하면서 공화제는 악의 근본을 제거하는 치유책이 되지 못하고, 결국 평등을 지향하는 정신이 저하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타고난 인간의 천사같은 성품을 타락시키는 모든 존재가치들을 우선적으로 배척하여야 할 대상으로 삼았던 것인데. 크게는 인간사회의 법률과 정치권력을, 작게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억제하는 관습과 도덕규칙 따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자율적인 아닌 인위적인 것은 그것이 설령 '개혁'이거나 '혁명'이라는 이름을 달았을지라도 또 다른 압력으로 보았다. '천한 사람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진정한 쾌락을 누리며 참된 지혜로서 자유롭고 포괄적인 혜택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평등화'라 여긴 그는 완전한 평등과 그런 인격체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억누르는 어떠한 제도나 물리적인 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인, 반강권주의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이 그들을 일러 공산주의자(communités), 테러리스트, 빨치산(partisan)이라 불렀다. 1910년대 일본의 왕가는

대륙에서 꿈틀거리는 이러한 변혁의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껴 동조자들을 싸잡아 '무정부주의자'라 규정하였지만.

한말. 이씨 왕가와 양반족속들이 일본제국으로부터 수여된 작위와 위로금을 챙기던 시절에 구레산골의 한 선비(매천梅泉 황현)가 선비의 지조를 강변하며 자결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봉건왕가에서 바라던 사육신다운 애국충절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회의 지도층들이 앞 다투어 불온한 재물과 권력에 양심을 팔아 버리자 자신만이라도 선비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에게는 '선비'라는 자존심 외에 왕조의 붕괴나 일본인에 의한 역사 개시 따위 등 어떤 것도 안중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하며 한 세상 외면한 채 그저 두 눈 딱 감고 살았다면 무엇을 부러워하였을까하는 우당友堂 이회영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의 행군을 자처하며 전 재산을 다 털어 중국 길림성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을까. 백사(이항복)의 후손이어서 그 자존심을 지키려 해서였을 것이라고 굳이 생각의 방향을 틀어보지만 그 학교를 찾아 '아리랑'을 불렀던 장 아무개의 목소리가 긴 여운으로 남는다.

새벽에 희망을 품고나와 풀은 채소보따리를 다시 거두어들인 노천시장 상인들과 선비의 자존심을 높이 외쳤던 역사 속의 그들은 모두 나팔꽃의 정령들이었을 것이다.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곧 지는 꽃이기에 그렇다. 그들 모두는 차갑게 타오르는 이성의 불꽃이자 새벽의 꽃잎을 구르는 감성의 이슬이 분명하리라. 그 청정한 나팔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호미를 들고 김을 매고 채소 갈아 새와 짐승을 기르는 전원의 삶도 참 재미있는 생활이 될 것이다. 천막의 그늘도 없는 광장에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는 자존심 강한 한 마리의 젊은 아나키스트(ANARCHIST)의 함성을 듣는다.

우리의 근대역사에서 자유시장과 같은 세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갑자기 패망하여 허겁지겁 그 제국의 깃발을 거두어가고 남은 광장의 장터가 그것이다. 국가라는 갑옷이 벗겨져 나가고 벌거숭이 알몸이 고스란히 노천시장에 남은 것과 같았다. 9월 8일 미군이 42척의 군함으로 인천에 닻을 내리기 전날까지의 24일 동안에 자유시장은 제대로 열리고 있었다. 비록 오천년의 역사 중 하루의 일초에 해당되는 짧은 역사이긴 하였지만 그 시장을 설왕설래이게 하였던 흔적들은 쉽게 찾아졌다.

해방 당일 날 매일신문에는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성명서가 보인다. 패전을 감지한 총독부 정무총감은 고하古下 송진우, 낭산浪山 김준연이 지레 겁을 먹고 거절한 치안을 몽양에게 당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후 종로 네거리에 이정而丁 박헌영을 부르는 벽보가 붙여졌다.(누군가가 거친 호흡을 숨긴 짐승처럼 기다리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열차운행은

중단되었고, 지방의 운동가들이 목탄차를 타고 서울로 집결하는 데 이삼 일 걸렸다. 16 일에 덕성여학교에서 대회가 열렸고, 휘문중학교 강당에서 '건국치안대'가 결성되었다. 다음 날, '국민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빠라가 서울 상공에 살포하였다. 대다수 국민이 해방을 실감하기까지는 이삼일이 걸렸다. 억눌려 터져 나온 듯한 '만세'가 있었다는 것은 연극무대를 모르는 (일본에서 편하게 공부한)초보감독(들)이나 할 말이다. 곧 많은 '그룹'과 '재건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건준위' 지부가 145 개소 조직되었으나 9 월 7 일 '인공'으로 대체되었다. 일주일 뒤 이미 11 일에 두만강근처에 있던 소련군이 남하하여 22 일에 평양에 입성하고, 서울 경기여고 강당에서는 큰 집회행사가 있었다. 9 월 1 일 국민당 당수 안재홍이 중경 임시정부를 지지한다는 신문기사가 있었고 벽보도 나붙었다. 9 월 6 일 경기여고 강당에서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열어 '건준위'를 해체하고, 국호'조선인민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서울에서 탄생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위원으로는 이승만, 여운형, 김규식, 김구, 김원봉(군사부장), 신익희, 안재홍, 조만식 등 55 명이었고, 이시영, 홍명희 등 고문 12 명이 후보위원 20 명과 함께 선출되었다. (실천문학사 여운형평전, 역사비평사 이정박헌영 일대기 인용)

누군가가 꽃의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역사를 움직일 만한 강한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꽃의 이기심을 발견하고 그 유혹의 자태로 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 이름을 명명할 것이 분명하다. 만일 최초의 씨앗에서부터 발아하고 생육하고 소멸까지의 역사로써 꽃이름을 붙인다면 그 이름들이 많이 우스울 것이다.

비는 여전히 그 만큼의 수량으로 꾸준히 내리고 있다. 이른 봄날에 내리는 이 비는 겨울의 마른 나뭇가지들의 갈증을 달래고 새로운 개화를 재촉하게 할 것이다. 부슬부슬 이슬처럼 내리는 휴일의 빗속에서 시장사람들이 자신들의 희망을 전시하듯이 나는 젖어가는 낡은 아파트의 베란다에 새로 구입한 아매치스 선인장 화분을 내 놓았다. 푸른 연꽃처럼 자태가 고은 어린 화분이 선홍빛 꽃망울을 키울 수분을 가득 품기를 기대하면서.



임도순

1957.6 전남 목포 출생
2007.3 sdu 문창과 입학
2010.5 '한국산문' 신인상
2011.2 SDU 문창과 졸업





시동아리

지도교수: 이재무 교수님

◇ 시

운흥사 外 2 편

곽도경

바람 이리 부는데 어찌누
벗꽃 다 지는데 어찌누

이런 날에는 우리
꽃 피는 것보다 꽃 지는 게 더 고운
운흥사에나 같까요

절 앞마당 든든히 지키고 선
백 년 왕벚나무 그 늙으신 몸이
안간힘으로 피워 낸 환한 꽃송이들
꽃비로 지는데
아깝고 안타까운 봄날은 가는데

그 꽃그늘에 서서
굵은 나무의 몸 가만히 안고 눈 감으면
껍질에 촘촘히 점자로 박힌 나무의 일생
아무도 몰래 적은 그의 일기장
그것 좀 훑쳐보면 또 어때요

이렇게 바람 불고
꽃비는 오고
봄날은 가는데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는데

☆ 시

양파

베란다에 내놓고
무심히 버려두었던 양파들
햇살도 바람도 없는
어둑어둑한 상자 속에서
긴 싹을 틔웠다

쭈글쭈글 물컹물컹
늪어버린 양파의 몸
햇살 잘 드는 창가에
소중히 올려놓았다.

다음 날 창가에는
뿌드득, 콩
누군가 허리 펴는 소리 들리고
양파 순들 햇살을 향해
조금씩 일어서고 있었다

삶이라는 시련의 강
아슬아슬 힘겹게 건너오면서
오 남매 잘 키워내신 칠순의 내 어머니
주름 가득한 얼굴로
굽었던 허리 펴시느라
온 몸으로 허공을 밀어 올리고 계셨다

◇ 시

동자꽃

지난겨울 언 뺨이 아직도 발그레한 그 아이 풀잎 사이에 쫓그리고 앉아 무심코 지나는 발목을
잡는다 혼자 견뎌냈을 밤의 무게와 바람의 모서리가 아이 몸 안에서 출렁인다
흘린 듯 취한 듯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그만 눈시울이 젖는다 어쩌면 나는 한 삼백 년 전 즈음
산속 암자에 아이를 버리고 모질게 등 돌리고 돌아 선 엄마였는지
울며불며 내려오다 서너 번쯤 뒤돌아보기는 했는지



곽도경

계간 '시선'으로 등단
수상/ 한맥문학 신인상
계간시선 '신인상'
계간시선 '정예시인' 선정 / 2013 년
고령문학 작품상
시집/ 풍금이 있는 풍경 (2010 년)
활동/ 계간'시하늘' 운영자
고령문인협회 부회장
은시문학회 사무국장
현대불교문인협회 재무국장
대구문학아카데미 회원
경북문인협회 회원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시

눈물무늬 찻잔 外 2편

김경숙

뼈가 녹아드는 불꽃 속에서
산고를 치른 흙이 잉태한
하늘을 닮은 자궁, 그
속에는 장대비 뒤집어 쓴 수면에
구부정한 팔 다리를 접어 넣고
숨 고른 몸을 풀어내는
빛나는 한 생이 있다

빨에서 연뿌리를 캐내고 있는, 그
속에는 흙투성이 리어카를 밀고 끌고
뉘엿뉘엿 저무는 노부부
물레질 하듯 평생 오일장을 오가며
부르튼 발자국을 찍어내던 옹이 박힌 시간이
글썩이는 풍경 안에 양수를 우려내고 있다

눈으로 다가설 수 없는 향기가
침묵과 침묵 사이에 다리를 놓고
엄동설한 불꽃 지문을 따라
연꽃을 피우고 있는
자궁 속 눈물무늬를 마신다

☆ 시

종점에서 두시간

싸늘한 플랫폼을 빠져 나와
아픈 눈물들이 뒤엉켜 혼절하는 대합실에서
무궁한 쪽으로 환승하기 위해 지고 온 짐 꾸러미들
하차하는 데 두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이별이 통보되지 않은 사진들에
검은 리본이 울다 웃다 사선으로 분리되고 있는 동안

무궁한 저 쪽으로 편승하는 차편에서는
타는 불구덩이라도 평안하기를
개찰구 앞에서 입술을 깨무는 시간
무너지려는 계단을 올라
벽을 움켜잡은 시계는 비틀거리는 가슴을 뜯어내며
신음소리만 쏟아내고 있다

지나온 길을 축축하게 복제중인 매표소에서
뺏속까지 켜켜이 묻혀 놓았던 짐 꾸러미들
말끔히 내려놓았는지 두 시간을 담금질한 승객은
환하게 웃으며 한줌 재로 발권되었다

밤이 되기 전에
무릉천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다

◇ 시

곡비(哭婢)

길썩에서 비는 풀색으로 운다

보호색에 능통한 풀
소맷자락에서 먹구름을 꺼내
주술사처럼 빗방울을 흔든다
빗금으로 주문을 외며
투신하는 빗물과 접신한다

불어터진 목울대에
폭우를 첨색添色하여 울다가
허리가 다시 꺾이는 풀

작달비를 건너야 하는 시간은
앞맥에 필사되는 통곡이고
비둘기가 음미하는 지령이 심장이다

그늘진 웅덩이에 떠밀려와
땅을 치며 허우적거리는 풀
관자놀이가 시퍼렇다

수면에 방생되어 비틀거리는 눈물
웃자란 달팽이집이 범람하고
낮 두 시 통점이 갈비뼈를 넘는다

만장을 펼럭이며
비의 익사체를 인양하는 풀
송장送狀을 발부해
무지개 목덜미에 걸어주었다



김경숙

2007년 월간문학 등단
지현야생화연구 소장
한국바다문학상 수상

저서 : *소리들이 건너다
*이별 없는 길을 묻다
*우리시대의 나그네
*먼 바다 가까운 산울림
*얼룩을 읽다 외 공저 다수

☆ 시

화평선/청보리 外 2 편

김상률

갯벌은 갯지렁이 썩레질하는 몸짓으로 가득하다
갯벌 속에서 혀로 농을 치던 청둥오리
갯벌을 등지고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규격화된 봉투를 찢고 나오는 가정의 패잔병들
쓰레기 실은 덤프트럭은
갯벌에 육중한 체중들을 내려놓는다
불도저 뺏뺏한 발자국이
그 패잔병 머리 위를 다시 덮는다
거기에서도 코스모스 씨앗들은 축수를 내린다
채로 걸러놓은 듯 고슬한 흙살이
코스모스 여린 뿌리를 받쳐준다
쓰레기장이 된 빨밭 일백만 평 화평선을 이룬다
꽃대궁이 따로없다
허허, 꽃 벌판이다
난 쓰레기 매립지가 된 갯벌도 잠시 잊고
꽃 멀미를 일으키며 팡팡 사진을 찍어댄다

◇ 시

산다는 것

폭염 한 섬 짙어지고 수로 공사장을 간다
강물은 수장룡 등에 실려가 버렸나
물 한 방울 흔적도 없다
수도 배관 수평을 잡고 물길을 열면
찰찰 물 달리는 소리 잠든 여우를 깨운다
굴삭기와 불도저는 서로 눈짓하며
사막의 모래를 물어뜯는다
야행을 해체당한 여우가 기어나온다
공공 감춰두었던 두었던 꼬리를
노출시키고야만 전갈도 전갈새끼도
줄줄이 기어나온다
여우는 그 틈에도 두 귀를 쫓긋 세워
전갈 꼬리를 물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인다
전갈은 한사코 모래 틈으로 고개를 쳐박는다
여우는 한사코 꼬리를 물어 전갈을 꺼낸다
난 말없이 굴삭기 시동을 끈다

◇ 시

나는 귀족노동자

시큼한 졸음이 한 입 씹혀온다
하루의 경계를 허무는 자정
덧이빨 속에 끼어오는
까칠한 한 끼 밥을 먹는다
뒷머리카락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늑한 방바닥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온종일 볼트를 매달고 나니
나도 따라 뱅그르르 도는 것 같다
입술은 연신 졸음을 뿜어대고
칠흑 같은 밤 환하게 밝아온다
초를 다투는 컨베이어에 자동차 수레바퀴는
물구나무서서 나를 힐끗 쳐다보고 지나간다
살불이처럼 부착되는 잔업과 특근
노동에 거나하게 취해 멀리 달아난
이십이 년 시간이 기웃거린다
나는야 귀족노동자



김상률

2011년 문학의봄 등단
공저 그리움도 흘러간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시

올해의 레시피^外 2 편

유원희

겨울 재료부터 준비할까요?
거꾸로 요리한다고 해서 올해가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봄부터 볶아내는 것 이젠 싫증나요
겨울 다음에 가을이 오는 것도 재미있잖아요
겨울 찬바람에 불게 데인 뿌리들이 붉은 점을 앞사귀까지
밀어 올리면 가을 단풍이 되는 거구요
봄꽃은 낙엽의 그리움이 바람에 날려 피는 거래요
나의 겨울은 뒷산 할머니의 한쪽 젓가슴에서 꺼내요 막 찌넌
가래떡처럼 항상 따뜻하니깐요
여우구름에 바람나 단풍 애간장 태우는 가을은 바삭바삭 튀겨줘요
바닷가에서 물장구치는 여름은 살살 달래 무쳐내요
아직 잠에서 덜 깬 봄은 볶아내고요
포크와 나이프로 조금씩 잘라 먹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맛이에요
입안에 침이 맴돌 때 천천히 먹어야 해요
체하면 무심하게 삼켰던 시간까지 토해내야 하니까요
코를 지켜세우고 혀끝을 입술까지 돌려줘요
물론 요리엔 향이 없어요 향은 매일 아침에 배달되죠
혹시 시장하세요
자, 그럼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봄부터 먹어볼까요?

☆ 시

땅의 귀

땅은
귀가 필요했어
그래서 사람의 두 귀를 꿰매 놓은
토란잎 귀를 달게 된 거지
가랑비를 토란잎 가운데로 모아
동그랗게 굴러가며 고문도 하지
발가락 개구리들이 토란잎 귀로 점프를 해
달팽이들도 뛰어들지
놀이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그들은 귀가 잠을 잘 때 세워둔 첩보원들이야
개구리들이 논두렁에서 우는 것은
죽은 엄마 때문은 아니야
귀에게 보내는 뉴스 타전이지
벌들이 장마에 실종되었다는 소문이야
싹!
귀를 막아줘
꽃들도 벌들을 따라 한강으로 뛰어들면 큰일이잖아

◇ 시

별을 파는 여자

남구로역에 발 뺀어 먹고 사는 삼성식품, 여자는
초저녁이면 문을 내리고
친정으로 별의 씨앗을 구하러 간다
하늘밭으로 나서는 여자의 손엔 망태가 없다
별의 씨앗을 담아오는 것은 손도, 호주머니도 아닌
언제부턴가 불쑥 튀어나온 그녀의 두꺼운 등이다
별은 진열하지 않고 등에서 하나씩 꺼내 판다
아침이면 가게 앞으로 쪼르륵 쪼르륵 발소리가 몰려든다
직업소개소 봉고차에 실려 가지 못한 사내들이
밤새 염불로 굴렸던 시커먼 한숨을 뱉어 낸다
여자는 별 하나씩을 사내의 가슴 밭에 밀어 놓는다
별 키우는 법은, 입꼬리를 높이 올려 설명해주고
혹시 아프거나 칭얼거리면
반드시 진찰 받으러 오라는 눈짓도 잊지 않는다
물 건너에 텃줄을 둔 검붉은 손도
커피 자판기에서 아침을 들이키는 지팡이도
여자가 등에서 꺼내준 별씨 하나씩을 담아 간다
가게 앞엔 별계단이 있다
그 별계단에 올라 본 사람만이
여자의 키가 허리쯤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녀의 밥그릇은 작다
별씨를 가득 심기엔 배보다 등이 불러야 한다
여자가 TV 를 보면서 사발면을 들이킨다
가을 가뭄에 말라버린 별들이 브라운관에서 우르르 쏟아진다
여자는 자꾸 블라우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유원희

전남 해남 출생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과 졸업
2008년 서울사이버문학상 가작 당선

◇ 시

오만칠천원 外 2 편

정혜선

그 미친년 이름은 오만칠천원이었지. 초가집 달박달박 옆구리에 끼인 동네, 할머니 새댁때는 참말로 뷔영-하고 부영새 우는 날 똥토간에 앉으면 호랭이가 시퍼렇게 밤눈을 쏘았대나. 그런데 아이들은 호랭이보담도 망태할아버지보담도 물귀신처럼 생겨먹은 그 오만칠천원이 훨 무서웠던 게지

꽃머리 까공하며 헬렐레 웃기만 하는데
깨금나무 아래서 홀러덩 깨벗고 이만 잡는데
무에 그리 무서웠을까나

열댓살에 이복서 피난오다 식구들 몽땅 잃고 밤낮 품팔며 양색시들 피걸레도 빨면서 오지게 돈모아 보란듯이 살림을 차렸더니 그 잘난 서방이 죄다 갖고 날랐다지. 쌀 한가마니 천 얼마하던 시절에 오만 칠천원씩이나, 오메 내 도운 오만 칠천워원- 냅놓고 사방으로 헤매다 그만 미쳐버린 게지

와장창 돈나가는 날이면 꿈속에 그 미친년 죽어라 날 쫓는 거 있지

☆ 시

바람의 거리

황병승 시집 『여장남자 시코구』를 만난 후

여장남자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서있다
병어리 손님들은 말없이 옷을 고르고
귀머거리 알바생은 귀신같이 전표를 뽑는다
겹겹의 맑은 레이온
한여름에 군밤 팔던 털북숭이 여자가
남자의 치맛단을 들추어 본다
붉은 초상화가 속삭이는 말,
하늘색 잉크로 세탁하시오
반드시 하늘까지 매달아 말리시오
하늘하늘 날리도록 입으시오
얼마나 밤을 구워야 살 수 있을까
가격표는 보이지 않는다
얼만큼 팔아야 입을 수 있을까
여장남자가 그네를 탄다
하늘색 치마 밑으로 남장여자들이 몰려든다
눈 먼 사장은 바이어스 속에 바코드를 심고 있다

◇ 시

노트북에 얹드려 잠이 들었네

문도 없이 사방이 짹짹 막힌 높다란 벽
천장과 맞닿은 한쪽 귀퉁이에
손바닥만한 쪽창이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아니라 금빛 나뭇조각을 박아놓은
가짜배기 문이었지요
넙따란 방안엔 달랑 침대 하나
나는 이곳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디로 나가야할지도 모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열리지도 않는 그 좁은 창으로
금발의 소녀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금빛 자루옷을 입고 깔깔대며 날아다닙니다.
내몸 위에 앉았다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깨질 듯 들려오는 드럼소리 나팔소리
트럼펫 팽과리 징 징 징소리
아무리 애를 써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혀 옵니다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창(窓)
그것을 부숴야할 것 같은데 너무 높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 없나요
사다리wa 도끼가 필요해요 마우스, 마우스!



정혜선

강원도 인제 출생.

2010년 「문학사계」등단.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소개





소셜동아리
창작집단명랑
지도교수: 이명랑 교수님

☆ 소설

연인

김유철

유칼리나무에 대하여

“유칼리나무에선 모두가 사랑에 빠진대요.”

처음 유칼리나무를 찾았을 때 S는 K에게 말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빵모자를 쓴 젊은 카페주인이 다가와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메뉴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K는 그 젊은 주인에게 유칼리나무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여기서 그 나무를 구경하기는 어렵죠. 호주가 그 나무의 고향입니다. 지붕을 뚫고서 높이높이 자라는 나무거든요.”

유칼리나무의 따뜻한 레몬 에이드

S가 K에게 처음 유칼리나무에 대해 말한 것은 거리에 네온이 하나 둘 밝혀지고 하늘이 서서히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하던 때였다. 1월의 스산한 바람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고 흑 하는 거친 겨울의 잔상이 S와 K의 얼굴을 스쳐 지나갈 때였다. 그때 S가 말했다.

“난 유칼리나무에 가고 싶어요.”

K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면서 미소를 지었다. 찬바람의 끝자락이 두 사람의 벌거벗은 곳을 휘감고 있었다.

“유칼리나무에선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K가 능글맞은 목소리로 그렇게 대꾸했고 S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날 K는 신문을 들고 와서 S에게 심각하고 어두운 말투로 말했다. 현재의 절망적인 글쓰기와 출판계의 벗어날 줄 모르는 침체를. 신문 사설에는 어느 베스트셀러 작품의 웃지 못 할

에피소드가 적혀 있었다. 4 주 동안 베스트셀러 10 위 안에 올랐던 책의 손익 계산서. 그것은 50 만원의 적자를 포함한 빈곤한 출판 시장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었다.

“적어도 이 빌어먹을 자본주의가 끝나지 않는 한 정신노동자들이 갈 곳은 한 곳 밖에 없을 거야. 어두운 지하도나 낡아빠진 다세대 주택 말이야. 베스트셀러에 4 주 동안 올랐던 이 책의 반년 치 판매량이 4 천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걸 말해 주고 있거든.”

흥분해서 주먹을 불끈 쥐는 K 를 보면서 S 는 잔잔한 미소를 보였다.

“뜨거운 레몬 에이드 좋죠?”

그러면 K 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은 채 피식하고 웃어 버렸다. 따뜻한 레몬 에이드와 서비스로 나오는 커피 토스트가 두 사람의 저녁이 된다는 걸 K 도 S 도 알기 때문이다.

유칼리나무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K 가 유칼리나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S 때문이었고 S 는 그녀의 친구인 L 을 통해서였다. 대학 4 년생인 S 보다 한해 후배인 L 은 S 와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 친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동성 이상으로 사랑한다고 K 는 믿고 있었다. 그것은 L 이 페미니스트이거나 혹은 자존심과 성격이 S 와는 달리 남성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하도에서 처음 L 를 만났을 때, K 는 은연중에 그 두 사람의 눈빛을 보고 말았던 것이다. ‘그곳에 가면 내 가슴이 마구 타 버리는 것 같거든. 아니? 그런 기분 말이야.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 S 가 처음 유칼리나무에 갔을 때 느꼈던 L 의 감정을 K 에게 똑 같이 말했을 때 그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다. 그럴 때면 K 는 S 의 입술을 훔치고, 깊고 뜨겁게 그녀의 입술을 탐하고 그 진한 향기를 음미했다.

“유칼리나무엔 나와만 가는 거야. 약속이다. 왜 그런지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짜릿한 키스 뒤에 K 는 다짐을 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여자 사이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는 것도 유칼리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K 는 생각했다.

유칼리나무의 슬픈 사랑 이야기

S 는 연약한 여자다. 그녀의 두 눈은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고 생각하고 공상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눈동자 속에 가려진 슬픔을 느낄 수 있다. K 는 S 의 눈동자에서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연민 같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엔 너의 그 웃음이 좋았고 나중엔 너의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사랑했지.”

K 는 S 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S 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에게 공감에 갔는지 몰랐다.

“가끔은 우리가 너무 닮았다는 사실이 불안해질 때가 있어.”

K 가 그런 말을 할 때면 S 는 묵묵히 K 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사랑을 느끼면서 이 사랑이 얼마 가지 못 할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마법은 비극적이게도 영원성이

없다. 마법이 풀리고 나면 두 사람 모두 겁에 질릴 것이다.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붙잡아 두었는가? 라는 의문을 품은 채.

“그때도 우린 지금처럼 지낼 수 있을까?”

문득 K가 말했다. S는 두 눈을 깜박거리면서 말없이 K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한참 뒤에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다. K는 얼굴이 붉어져서 엉거주춤 S의 머리를,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만졌다. 물론 그는 그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S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신이 다른 성(性)으로 살았다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 우습지만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널 본 순간, 나와 처음 만나서 새벽 3시까지 이야길 나누었던 그날, 나는 내 앞에 또 다른 내가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게 바로 너야.’ S는 K가 했던 말을 생각했다.

“그래서 우린 비밀이 없는 거야. 서로의 눈을 보면 모두 알 수가 있거든.”

S가 말했다. K는 다만 S를 꼭 껴안았다. 유칼리나무에선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이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은 현실이다. 유칼리나무는 현실에 떠 있는 환상이다. 그래서 그들은 유칼리나무를 떠나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두려움을 느낀다.

유칼리나무를 떠난 S는

S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한기를 느꼈다. S는 유난히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 두터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어쓰고 한동안 눈을 감았다. 옆으로 누워서 몸을 최대한 웅크리면 싸늘한 기운이 그래도 덜하다. 그렇게 다시 잠이 든다. 깊은 잠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고른 숨소리를 스스로 듣게 된다면 그녀는 아마 자신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 문득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밤새 외박을 하고 들어온 동생 H다. 그는 직업훈련학교 학생이고 거기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오늘은 - 그러니까 일요일인 셈이다. S는 베이지색 카디건을 어깨에 걸치고 큰방 문을 열었다. 동생이 멍한 눈으로 방 중앙에 앉아 있었다. 동생은 문 앞에 서 있는 S를 올려다보며

“어, 있었어.”

하고 피식 웃었다. 길게 찢어진 입술 사이로 술 냄새가 은근히 배여 나왔다.

“그 여자랑 있었어?”

S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동생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방안을 둘러보고 작은방 쪽을 은근슬쩍 바라보았다.

“거기 이불 그대로지. 나 잠 좀 자야겠어.”

비틀거리며 동생이 일어났다. 1미터 85센티미터가 넘는 큰 키다. 아버지를 닮아 텔런트처럼 잘생긴 얼굴이다. 그러나 눈은 - 그 눈은 S처럼 슬프다. S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동생의 뒷모습이 서글퍼 보였다. 첫 번째 새엄마, 그녀는 유난히 동생을 싫어했다. 행동하는 게 불결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밍다고 했다. 무슨 일이든 트집을 잡아 동생을 못살게 굴었다. 그럴 때마다 동생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새엄마를 노려보았다. 그 작은 눈에 눈물이 고여도 절대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밥은?”

S가 물어도 동생은 대답이 없었다.

“밥?”

S가 다시 물었다. 그제야 동생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먹었어.”

“어디서?”

“J의 자취방.”

J는 동생의 세 살 연상의 여자 친구다. 가끔 그녀의 자취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것 같았다. S는 한동안 동생의 뒷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이젠 너무나 어른이 되어 버린 동생이다. S는 한숨이 나왔다. 이 두 칸짜리 방에서 아버지와 두 번째 새엄마와 새엄마의 피하나 섞이지 않은 남동생과 지금의 친동생, 그렇게 다섯 식구가 살고 있었다. 아버진 그러니까 생활을 위해서 지금의 새엄마와 재혼을 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나이가 되면 현실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나이가 되면 사랑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S는 작은 방의 문을 닫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가스레인지에 국을 끓이고 전기밥솥에서 밥을 퍼 그릇에 담았다.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하얀 수증기와 함께 새어 나왔다. S는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는 냄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K의 말이 생각났다. ‘미역국 좋아한다구 그랬지. 그럼 내가 널 위해 맛있게 끓여 줄게.’ S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일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그는 회사를 나가지 않는다. S는 K가 보고 싶었다. 그의 핸드폰은 언제나 S를 위해 열려 있었다.

일요일, 유칼리나무에서의 약속

S로부터 핸드폰이 울렸다. K가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손을 들어 머리맡에 놓아둔 핸드폰을 집어 들었다.

“아직, 자고 있었어요?”

S의 목소리가 나직이 들려 왔다. K는 길게 한숨을 내쉰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K는 사랑했다. 약간 고음이 섞인, 그러나 부드러운 목소리다.

“응.”

“피곤해?”

“아니, 이제 일어나야지.”

K는 이불 속에서 기지개를 한다. K에게 있어 S는 삶의 원동력이다. 그녀가 있음으로서 K는 힘을 얻는다. 그녀의 목소리와 그녀의 눈과 그녀의 입술을 - 그 넉넉한 마음에 K는 위안을 받는다. 이불 속에서 나온 K는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하늘은 파랗다 못해 투명하다. 코끝이 찡할 정도로 차가운 공기지만 그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 내뿜는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하얀 입김이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과 전봇대, 앙상한 아카시 나무로 뒤덮인 산과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로 사라져간다.

“거리가 너무 한산해.”

K가 말했다.

“잠깐.”

S도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꿈꾼다. 언젠간 같은 곳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풍경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고.

“뭘했어?”

“밥 먹으려구요.”

“학교 나갈 거지?”

“응.”

“그럼, 점심때 거기로 나와.”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나오면.”

전화를 끊으려는 S에게 K가 말했다.

“사랑해. 알지?”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곧 들려왔다.

“저두요.”

전화를 끊은 K는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듣고 싶다. 저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다 K는 S의 걸음걸이를 떠올린다. 그녀와 처음 연극을 보러 가던 날, K는 문화회관 마당에서 걸어오는 S를 발견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마당의 앙상한 나뭇가지엔 푸른 잎사귀 대신 반짝이는 꼬마전구가 매달려 있었다. 주위는 어두웠고 연극 「파우스트」를 알리는 현수막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K는 그때의 S 모습을, 그녀의 수줍어 보이던 미소며 약간 어긋하게 걷는 걸음걸이며 바람에 휘청거리는 야윈 어깨를 기억했다. 문화회관 앞마당을 걸어오는 그녀를, 그녀의 걸음걸이를 그때부터 K는 사랑하기 시작했다.

유칼리나무를 떠난 K는

K의 방에는 푸른색 스즈키복이 여러 벌 걸려있다. 땀에 젖어 퇴색되거나 기름때로 시커멓게 변한 스즈키 작업복 사이엔 책들이 어지럽게 쌓여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멘을 쓰고 용접을 하지만 그의 목은 붉게 변해있었다. K의 시선이 이번엔 양손으로 향한다. 어느새 거칠고 투박해진 손은 - 고등학교 선배의 시에 나오는 지문이 닳아져버린 황씨 아저씨같이 변해있었다.

그가 스물네 살이었을 적에 아버지가 사라졌다. 어머니 말로는 여자가 생겼다고 했다. 울부짖으며 신세타령을 하던 어머니도 그 다음 해에 사라졌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남자들이 찾아왔다. 앞서 들어온 남자의 오른쪽 뺨에는 칼자국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 대해 물었다. K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한 달 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죠? 지금 몇 신 줄이나 알아요.’ 하고 말했다. 남자는 얇은 입술을 씹룩거리며 몇 장의 차용증서를 보여주었다. 증서 제일 밑에는 어머니 이름과 사인, 지장이 찍혀 있었다. 그는 차용증서를 다시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빚을 3천만 원이나 지고 잠수 탔어. 그러니까 바른대로 말해. 서로 피 볼 생각 아니라면.' 칼자국 뒤로 깎두기 머리를 한 비겡덩어리가 모습을 나타냈다. 그의 오른손에는 30 센티미터 길이의 쇠파이프가 쥐어져 있었다. '어디 있어?' 칼자국이 다시 물었다. K는 피식하고 웃으며 대답했다. '말했잖아요. 한 달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구.' '자식이..... 지금 웃고 있는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대.....' 칼자국이 비겡덩어리가 들고 있던 전기테이프가 감긴 쇠파이프를 빼앗았다. K는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칼자국과 비겡덩어리가 말없이 K의 행동을 바라보았다. 미닫이로 된 문을 열자 빈 소주병이 흩어져있는 부엌 바닥이 드러났다. K는 싱크대로 걸어가 서랍장을 열었다. 스테인리스로 만든 과도를 천천히 집어 들었다. 두 달 동안 5만원으로 살아야했던 이유를 그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다. 하루를 김밥 두 줄로 때워야만 했던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칼자국과 비겡덩어리의 돈뿐만 아니라 전세금과 대학에 가려고 모아두었던 통장까지 가지고 사라졌던 것이다. K가 다가가자 칼자국이 흠칫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비겡덩어리가 K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이봐, 친구. 갈 때까지 가자는 거야!' 비겡덩어리의 표정은 거만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K의 볼에 보조개가 일었다. '잘 됐어. 어차피 이젠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었으니까.....'

K는 그 뒤의 일이 생각나지 않았다. 나중에 자신이 비겡덩어리의 옆구리에 칼을 꽂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칼자국이 쇠파이프로 K의 머리를 내려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고 형사는 말했다. '그렇다곤 해도 상방과실에 무단침입, 공갈협박이니까.....' 경찰대학을 나왔다는 형사는 K에게 담배를 건넌 뒤 불을 붙여주었다. '절망이 클수록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야. 자넨 아직 젊어.' 하지만 K는 담담했다. 호적에 빨간 줄이 그인 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신에게 조금은 미안한 감정을 가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인자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K가 독백하듯이 내뱉었다. 형사의 눈이 씩룩거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묵묵히 서류를 만들고 그에게 지장을 찍게 했다.

K는 -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구속되지 않았다. 1년간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칼침을 맞았던 비겡덩어리도 그가 구속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서를 나온 K는 그날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녔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종아리에 쥐가 날 때까지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지구 끝까지라도 가고 싶었다. 자신과 자신 주변의 모든 것에 애정을 가질 수 없었다. 회색 콘크리트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매연을 뿜어대는 자동차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떠돌고 있었다. 이 절망감을 이 불안감을 이.....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어떻게 흔적도 없이 태워 버릴 수 있을까? 그러다 그는 운명처럼 서점 앞에 진열된 '죄와벌'을 보고 말았다. K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도스토예프스키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유칼리나무로 향하는 S는

거울 앞에서 S는 화장을 한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립스틱을 바른다. 대학 4년생이란 부유하는 군상이다. 국문과를 다니는 그녀에게 남아있는 일자리는 무엇일까? 그녀는 6개월짜리 어학연수조차 갈 형편이 안 되었다. 학기 내내 학원을 다니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다.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녀는 늘 미래가 불안했다. 여유 있는 친구들에게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 어쩌면 자존심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 성형수술을 하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피부를 다듬기 위해 그들은 분주했다.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라이선스를 따고 부모의 소개로 대기업이나 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남자를 소개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S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부러질 듯한 궁핍과 위태로운 환경에 스스로 놀라곤 했다. 불안감은 그녀들에겐 일종의 기회이자 열등감을 자극하는 유희 같았다. 하지만 S 에겐 절망적일 만큼 크고 높아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철옹성같이 느껴졌다.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K가 졸업 선물로 미리 사준 검은색 정장을 입는다. 그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K는 백화점으로 그녀를 끌고 갔다.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말구 좋은 걸 선물하고 싶어.' 정작 그렇게 말하는 K의 청바지는 여기저기 올이 떨어져 나가 있었다. 짙은 감색 점퍼는 그녀가 대학 2학년 때부터 봐왔던 거였다. S는 눈물이 핑 하고 돌았다. 그러나 그건 흔해빠진 감동이나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왜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일까? 왜 우린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하고 그에게 묻고 싶었다.

아직은 꿈꾸고 싶은 K만의 유칼리나무

K는 창가에 자리를 정한다. 빵모자를 쓴 젊은 카페 주인이 메뉴판과 따뜻한 물 주전자를 들고 다가온다. 그는 언제나처럼 눈인사를 건네고 예의바르게 메뉴판을 내려놓는다. 물 컵에 물을 따르면서 '이른 시간이어서 조금 추울 겁니다.' 하고 그에게 양해를 구한다. K는 괜찮다는 미소를 보낸다.

"오면 같이 시킬게요."

카페 주인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선다. K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나서 눈을 감는다. 조금은 피곤해지는 시간이다. 부둣가에서 일하는 K에게 겨울 날씨만큼 곤욕스러운 건 없었다. 한 겨울에 몰아치는 바닷바람은 그의 모든 사고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 발가락과 손가락 끝이 바늘을 찌르듯 아파오기 시작하면 그는 애써 S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비록 계약직이긴 하지만 그는 3년 째 버티고 있었다. 보너스를 받을 수 없고 진급이나 연봉이 정직원처럼 보장되지 않지만 K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했다. 퇴근한 후엔 수세식 화장실이 딸린 공간에서 글을 쓸 수 있다는 현실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스물네 살 이후로 미래를 생각하는 일은 없었다. 10년 뒤의 자신을 그려보는 건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일 중의 하나였다. S를 사귀기 시작하면서 - 그녀가 K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 그는 불행하게도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 결혼이라는 것. 아니 구체적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그녀와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싶다는 욕망이 끊임없이 그의 가슴에 거미줄을 만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혹은 그녀가 내뿜는 숨소리와, 미간을 찡그리면서 안경테를 걷어 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녀가 사용하는 문체와 그녀의 글 속에 담겨진 애잔한 여운을 K는 사랑했다.

그러나 K는 또한 알고 있다. 언젠간 그녀 스스로 자신을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조건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크알리나무의 젊은 주인이 K를 위해 음악을 이루마의 피아노곡으로 바꿔 틀었다. 이루마의 음악은 실은 K보다 S가 좋아했다. 그는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었다. 카운터로 걸어가 카페 주인에게 브랜드 커피를 주문했다. 카페 입구에 있는 책꽂이에서 폴 오스터의 「달의 궁전」을 집어 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폴 오스터는 레이몬드 카버와 함께 그가 좋아하는 미국작가 중 한 사람이다. K는 오래전 처음 그의 소설을 읽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만일 나한테 죽을 용기가 없다면 적어도 자유로운 남자로 살아가자' 그가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은 소설 속 문장이다. 그리고 그는 S를 만나기 전까진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언젠간 끝이 날 그들을 위해.

K는 정장을 입은 S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유크알리나무를 들어서서 그녀를 보면서 그는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 저린 감정은 맞은편 자리에 S가 앉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창문으로 K의 마음처럼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녀가 씩스러운 듯 말했다. K는 말없이 입을 방긋거린다.

“예빠.”

“고마워요.”

“뭐가?”

S는 옷의 결이며 모양새가 나도록 양팔을 펼쳐들며 K를 바라본다.

“아냐. 좋은 걸 못 사줘서 미안해.”

“아니에요. 저에겐 이 옷이 제일 소중한데요.”

그녀의 얼굴이 붉게 변한다. K는 잠시 두 눈을 -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은 S의 두 눈을 바라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런 게 사랑일까? 하지만 그는 곧 냉정을 되찾는다. K에게 있어 세상은 의미가 없었다. 그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고 껌데기에 불과했다.

“졸업한 뒤엔 어떻게 할 거야?”

카페 주인이 테이블 위에 레몬 에이드를 놓고 돌아갔을 때 K가 물었다. S는 김이 오르는 레몬 에이드의 베이지색 머그잔을 내려다보며 말한다.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래.....”

언젠가 S는 K에게 자신의 꿈이 대학교수란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었다. 물론 그때도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다. 그녀에게도 꿈을 꾸는 것,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잘 됐으면 좋겠어.”

K가 그녀에게 말한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글 쓰는 거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S는 입술을 꼭 다물며 고개를 끄덕인다. 유칼리나무에 도착하기 전에 받았던 두 번째 새엄마의 전화에 대해 S는 K에게 결국 말하지 못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빚을 갚는 것만 해도 힘에 부쳐. 너희 아버진 여전히 무능하고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나마 네가 졸업반이라서 다행이다. 그렇지 않니? 요즘엔 머리를 깎으러 오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도 삼거리 앞에 새로운 미용실이 생기는구나. 하지만 곧 잘 되겠지. 너두 이젠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으니까.....’ S는 K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한다.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창밖을 바라보던 K의 시선이 S의 얼굴로 향한다. 그는 상체를 곧게 하고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짓는다.

“사랑해.”

“저두요.”

S가 대답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K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의 집이 조금만 더 행복했더라면 그에게 힘들다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며 푸념을 늘어놓거나 위안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고.



김유철

1971년 부산출생.

2002년 스포츠서울과 바로북에서 주관하는 제 1회 인터넷문학상 대상 수상. 장편소설 '오시리스의 반지'

2009년 부산일보 신춘문에 해양소설 당선 중편 소설'위대한 유산'

2010년 문학동네작가상 수상. 장편 소설 '사라다 햄버튼의 겨울'

2014년 아르코 문학장작기금 수혜. 장편 소설 '붉은섬'

그외

'미츠코에 관한 추억' '연인' '탐닉' '암살' 등 중단편 소설과 장편 '레드'를 발표함.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소설

하늘아래 첫 단감

예시원

며칠 째 이른 초겨울 영하의 혹한이 찾아왔다. 현석은 퇴근길 버스 창가에 비친 아파트를 보았다. 불 꺼진 창가의 어둠, 그 옆엔 한줄기 빛이 있다. 그 집을 바라보며 상념에 젖어본다.

“저 집 사람들은 행복할까,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집도 있고 작은 행복을 감사하며 소박하게 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불 꺼진 창엔 나처럼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살겠지.”

퇴근시간 회사 정문 앞에서 현수는 트럭에 실린 추운 단감을 보았다. 서리 맞기 전 작업을 서두른 흔적에 발길이 멈췄다. 칼바람 속에 서 있는 사내는 단감을 급히 팔지만 그 속은 쓰릴 것이다. 떨감 같은 속을 달래느라 오늘밤도 찬 소주를 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현수는 허전한 속을 찬 소주로 달래본다. 내일은 속 풀이로 단감을 깎아 단물처럼 단 인생을 느끼고 싶다. 트럭에 실린 단감을 보니 고향의 아버지와 감 발이 떠올랐다.

퇴근길에 마주친 포장마차 앞을 무심히 지나치다 손가락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 차가운 트럭 짐칸에서 늦은 밥을 먹는 사내의 움직임 따라 냄비가 달그락댄다. 그 들썩이는 어깨를 따라 현수의 어깨도 덩달아 들썩인다. 저만치 가다 되돌아와 순대 오 천원어치를 주문했다. 눈앞에 뽀얀 김이 솟아오르고 칼질에 잘린 내장에선 핏물이 묻어났다. 사내는 꾸역꾸역 찬밥을 마저 먹고 현수는 꾸역꾸역 순대를 먹었다.

“왜, 당신은 찬 바닥에서 밥을 먹고 난 순대를 먹어야 하나?”

돌아서는 발걸음 끝에 핸드폰이 울렸다. 수많은 나날을 밤거리에서 휘청거렸던 젊음의 흔적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었다.

“행복한 날 보내세요, 아가씨대리운전”

누군가에게 떠밀려 나온 생처럼 폐품처럼 구겨지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움츠리게 하듯 찌푸린 하늘엔 성난 눈발이 내린다.

현수는 매일 출 퇴근길에서 마주치는 나무가 한그루 있다. 거리의 가로수가 온통 붉이면 화려하게 빛을 발하던 벚꽃 나무다. 그 중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의 마음을 괴롭히던 것이 마지막 코너에 위치한 나무다.

매일 지나치면서 어느 순간 자신이 그 나뭇가지에 집착하여 격려를 보내고 있었다. 너무 안쓰러워 나뭇가지를 잡아떼어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반쯤 부러진 상태에서도 잎이 파릇파릇 살아남는 것을 보며 알 수 없는 희열이 느껴졌다. 그래서 오가며 그 가지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었다.

“그래, 너는 반쯤 부러졌지만 그래도 나뭇가지다. 마지막까지 매달려서 나무로서의 의연함을 가져라. 힘을 내라”

만약 그 가지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말라 죽었다면 볼품없는 쓰레기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지는 두 달간 힘겨운 사투를 벌이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다.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현수는 그 나뭇가지에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였다. 마지막 갈 때까지 나무로서의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이다.

현수는 그 나뭇가지의 죽음을 놓고 숙연함을 느꼈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우리네 일상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목표와 목적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쯤 생각해볼까 궁금해진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시계 부랄처럼 왔다갔다 지겹게 반복되는 일상도 결국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귀청을 아프게 때리는 알람소리도 째깍째깍 통근버스 시간을 재촉하는 바늘도 뜨거운 호흡, 종종거리는 발걸음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죽은 삶은 죽은 시계처럼 움직일 수 없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루해를 보낸다.

어제 본 그 사람을 오늘 또 본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지겹지만 지겹지 않은 것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내가 숨 쉬고 살아있는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대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미워하고 때론 웃으며 마주보고 있다는 건 감사해야 할 일이다

현수의 부친 박동만은 중동건설 붐이 한창이던 70년대에 조국근대화의 기수로 사막에서 젊음을 불태웠다. 굴곡 많았던 그의 삶은 영광과 상처를 늘 함께 안고 있었다.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조국을 희망으로 승화시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현재 삶은 너무 초라하기만 하다.

열사의 나라에서 같이 고생을 한 동료들 중에도 가족이 해체되어버린 사례가 많았다. 동만 역시 동생의 사업실패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다. 현수는 사춘기에 가난이라는 절망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자라 주었다. 동만은 늘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못해주는 것이 괴로워 비틀거렸지만 악착같이 살아 보려고 고향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농촌을 떠나 있었던 동만이 농사일을 다시 하기엔 너무 서툴러서 심는 작물마다 실패를 많이 겪었다.

살려고 파닥거리면 힘 빠져 죽고 힘을 빼고 축 늘어져 천천히 움직이면 산다고 했다. 아주 오래오래 간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만 때로는 한 치 한 발자국도 더 못나가게끔 막는 어떤 힘이 더 큰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무력감이 들기도 한다.

남한산성에 갇힌 왕처럼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뿜만 한다. 내뿜을 오래하면 못 참는 자는 달아나고 오래 참는 자만 남는다. 답답해도 할 수 없지만 지독하게 내뿜을 하면 봄 같지 않은 봄이지만 눈 녹으면 봄이 오긴 온다.

박동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는 오기가 치솟았다.

회색빛 슬레이트 지붕 밑 마루에 누워 있는 동만은 벌써 두 번째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비우고 있다. 빗물을 철철 흘리고 있는 TV 에션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청년 실업자가 백만이라고 요란을 떨고 있다. 철퍼덕 자빠진 막걸리 병 옆엔 똥파리 한 마리가 뭘 잘못했는지 동만을 향해 두 손바닥을 벌고 있다. 바짝 마른 쥐포 쪼가리를 씹으며 파리를 쫓아내다 그만 누운 막걸리 병을 건드려 누런 찌꺼기를 토해내게 하고 말았다.

“이기 머시 이런 기 다 있노? 똥파리 댐시 막걸리도 못 마시겠네. 에이 니미럴 더럽어서”

동만은 혼자 중얼거리며 발로 걸레를 밀어 쏟아진 막걸리를 닦아냈다.

학교 앞에서 떡볶이와 김밥, 어묵 장사로 평생 모은 돈 20 억을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내 놓은 어느 할머니의 기사가 방송에 나왔다. 자신은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배운 한을 이렇게라도 풀고 싶어서 아낌없이 희사를 했다고 한다.

“무슨 놈의 억이 누구 집 똥개 이름이까? 할마시 참 대단 하데이. 내 한테 그 돈 십분의 일만 있어도 내 팔자가 요래 꼬이지는 안 할긴데”

그때 녹슨 철문을 밀치며 푸른 작업복 차림의 현수가 들어온다.

“아버지, 또 술입니꺼? 인자 제발 고마 드시이소”

“현수야 미안하데이. 나는 내가 꼭 대학교 보낼라 켜는데. 니 입고 있는 실습복 보이까네 내 복장이 터진다 고마. 애비도 노가다 자숙도 노가다 집안 꼬라지 좋다.”

동만은 고학하면서 야간 공업고등학교를 나온 자신의 뒤를 이어 자식마저 교복 대신 푸른 실습용 작업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슬픔이 봇물처럼 밀려왔다.

청도택이 고구마가 가득 실린 외발 리어카를 세우며 들어온다.

“현수 아버지 와 그라는데 무신 일 있는교?”

“아이다. 내가 저놈의 자숙 쳐다보이 억장이 무너질라 캐서 그란다 아이가”

“그래도 자 만한 아들도 없소. 저거 부모 고생 한다고 지가 알아서 공고 안 갔는교. 그래도 저거 학교서 공부를 원체 잘 하이까네 선생들이 아깝다고 자꾸 대학교 시험 보라 카는 바람에 요즘 마음이 좀 심란 한갑데요.”

그랬다. 현수는 공고를 졸업하면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다. 집안에 부담을 줄이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는 조금 뒤로 미루기로 하였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나중에 야간대학이라도 갈 생각이었다.

“현수 아버지, 생각하며 맘이 아프지만 그래도 현수가 얼마나 기특한교?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우야는교? 녀들은 번듯한 집에 재산이 많아도 뼈뺏하이 빗나가는 자숙들이 있는데, 현수가 너무 철이 빨리 들어서 탈이제 바르게 잘 자라주는 것만 해도 다행 아인교?”

“우리라고 언제까지 이래 살아라는 법이 있는교? 당신도 인자 술 고마 잡숫고 하는 데까지 한번 힘써서 살아 보입시더.”

동만은 눈시울이 뜨거워져 공연히 먼 산만 쳐다보며 껌뻑거렸다. 길게 내뿜는 뽀얀 담배 연기가 자신의 앞날처럼 느껴져 한숨만 내 쉬었다.

동구밖에는 손 발 다 잘린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다. 모가지도 잘린 채 살아있다. 마을 입구를 굳건히 지키며 서있는 저 나무는 가슴을 사정없이 땡겨 잘리고도 그저 뻗세게 서있다.

비, 바람, 흙이 그를 도와 새 생명을 잉태하니 하마 마를라나 하마 마를라나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아래 고개 속이다. 웅덩이같은 밭둥이를 보면 동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만은 아무도 없을 때 희한한 그 나무를 엉덩이 밑으로 고개 숙여서 보았다. 다리만 잘린 나무 세상은 거꾸로 돌고 있었다. 머리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웃고 즐기며 숨 쉬고 있다.

“그것 참 고떡도 안 하네. 희한한 일이다.”

동만이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온 건 중동에서 돌아온 지 한 달만이였다. 3년간 폭염 속에서 고생을 해도 희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내와 함께 조그만 가게를 하려던 계획이 거의 달성 돼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3년이 거의 다 돼갈 때 동생의 사업실패로 부부의 그 소박했던 꿈은 물거품이 되어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중동으로 떠나기 전에 보증을 써 준 것이 발목을 잡고 만 것이였다. 열사의 나라에서 개미처럼 일하고도 자신은 돈 한 푼 쥐어보지 못하고 뭉땅 날아가 버린 것이다.

동생은 잠적해버리고 청도택과 어린 현수가 살고 있던 전셋집도 나와 당장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엔 빈손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가 땅에서 땀을 흘려야만 했다. 어렵게 구한 자갈논과 황무지 밭에서 새로 시작해 가을이면 푸근한 결실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행복도 잠시 뿐이였다. 우루과이 라운드다 한미 FTA 다 뭐다 해서 각종 수입 농산물이 우리 시장과 밥상을 잠식하면서 사람들의 입맛도 우리 것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동만은 끝까지 땅을 지키며 살고 싶었지만 갈수록 삶은 팍팍해지기만 했다.

독길에 심어놓은 콩잎은 목이 탔다. 짹짹 갈라진 논바닥과 동만의 머리에 불을 놓는 시뻘건 태양 때문에 아지랑이 너머 원두막이 두개로 왔다 갔다 한다. 그 머리엔 잔뜩 까시래기가 얹혀 이른 나이에 벌써 삭은 노인네가 돼간다. 육천 도 끓는 가마 속처럼 바삭 구워져 초벌구이가 된 몸과 잉겔불에 달구어진 타는 목마름은 점점 더 심해질 뿐이였다. 시원한 감로수를 축여도 칙칙 김을 내며 증발되는 물처럼 그때뿐이다.

막걸리에 썬 김치 한 조각으로 허기진 배와 타는 목젓을 달래보지만 머리 속은 여전히 이글거린다. 골짜마다 갈라진 헛바닥으로 활아대지만 폐경기 음부처럼 바삭 말라있다. 가뭄에 논과 밭은 젖을 빨지 못한 사내의 육신에 살비듬만 버섯거리게 한다. 동만은 오늘도 골짜기에 남은 습기를 찾아 삽질을 해 대지만 목마른 사내와 물 마른 여인의 살처럼 먼지만 폴폴 날릴 뿐이였다. 낮에 마신 막걸리가 깰 때쯤 동만은 마을회관 노인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노인들이 앉아 국수 내기 화투를 치고 있었다. 화투에 약한 이들은 옆에서 개평을 뜯고 비록 점당 백 원짜리지만 점점 판이 흥미진진하게 무르익어가는 중이였다. 동만은 심심하던 차에 옆에서 연신 입방아를 찧으며 돈을 잃은 장 노인의 화를 돋우니 발끈 화를 낸다.

“그 주둥이 좀 다물어라,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없데이. 더 지껄이며 고마 확”

“아따 행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라는교? 겨우 국수 내기함서”

동만은 슬슬 장 노인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서 상대방 노인에게 유리하게끔 도와주었다.

“아따 행님 똥 목으소 똥, 똥 쌍피 가지고 뭐 하는교? 비 목으소 비”

결국 장 노인은 아침에 며느리에게 얻은 용돈 삼천 원을 다 잃고 부아가 나서 동만을 노려본다.

“야 이 만 놈의 자숙, 빌어 목을 자네 땀시 화투 베려났다 아이가? 인자 우알끼고?”

“어따 행님도 우째 화살이 내게 돌아 오는교? 화투 치는 사람 마음이지 안 그렇지?”

“뭐가 우짜고 우째? 남의 화투판 다 깡판 쳐놓고 그런 말이 나오나?”

싱크대에서는 국수를 삶은 물이 끓고 할머니들은 김치와 양념을 준비하고 있다. 돈을 딴 노인은 슈퍼에서 소주와 막걸리를 사오며 동만에게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마을회관에서 국수 한 그릇으로 점심을 때운 동만은 담배 한 대를 맛나게 태우며 슈퍼 앞을 지나가다 이장을 만났다. 이장은 자전거를 세워 둔 채 가게 안에서 점심으로 소주와 라면을 먹고 있었다.

“어, 이기 누고 삼수 아이가? 이기 머꼬? 와 집에서 밥 안 묵고 여기서 이라노?”

“말도 마라. 농민단체에서 이번에 서울에 상경투쟁 한다고 난리더라. 그래서 거기 돌아가는 이바구도 들을 겸 갖다 오다가 때를 놓쳤다 아이가.”

“머한다고 밥도 안 묵고 돌아 땡기쌍노? 그칸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장은 우리 마을 단속이나 잘 해라 고마”

“오냐, 알았다. 이리 와서 막걸리나 한 잔 해라”

“난 오늘 하루 종일 막걸리네 헤헤”

“올해는 나락 물수매를 좀 많이 해준다고 하네. 자네도 마이 준비 해 놔라. 그리고 감 값도 괜찮더라. 첫물에 바짝 마이 따서 출하해라. 돈 되게”

“온냐, 고맙데이”

동만은 오늘따라 동네 노인들과 이장을 만나면서 그래도 고향 인심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와는 달리 이바구와 먹는 인심만은 아직도 푸짐하고 마음도 푸근했다. 가게를 나와 반쯤 피우다 끈 담배에 다시 불을 붙였다.

양 볼따구가 오목해지도록 힘껏 빨아들인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먼 산을 바라본다.

저 산에 아버지가 있었다. 저 산에 가면 역새풀 벗짚 냄새에도 아버지가 있다. 가을 들판에서 까시래기 날리며 타작하던 냄새가 아버지가 누워계신 산에서 난다. 욕심 많은 아버지는 살아생전 그 냄새마저도 저 산에 데리고 갔다. 동만의 등에서도 아버지 냄새가 난다. 아버지의 소소한 욕심 같은 것이 그의 몸에서도 흘렀다. 그 몸에 아버지가 있는 것이다. 어느덧 동만도 중년의 역새풀이 되어 쉰내 풍기던 아버지같이 한 개비 담배연기에 청춘이 간다. 마을회관에서 마주친 장씨 영감님, 그 몸에도 아버지 냄새가 났다. 하회탈이 된 얼굴, 잘 익은 웃음, 잘 익은 슬픔이 보인다. 소나무 고목 밑둥치 같은 허물어져가는 육신을 이끌고 혼자 쓸쓸히 경로당을 지킨다. 말없이 옆드린 바위는 하고 싶은 말 다 뱉지 말고 아끼며 살라한다. 아버지는 동만에게 그렇게 말씀 하신다. 동만은 역새풀밭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딸까닥거리는 기계 소리를 들으며 청도택은 둘째딸 정희와 단감 선별과 포장작업을 하고 있다.

“엄마, 아버지는 또 어데 갔노? 맨날 술만 묵고 일은 안하나? 엄마 혼자 일 다 한다 아이가”

“그런 소리 하지마라. 너거 아버지도 요새 속이 마이 상해서 그란다 아이가. 너거 오빠야가 공고 졸업하고 취업한다고 해서 더 마음이 안 좋은 갑더라”

“아버지도 그렇고 오빠야도 그렇고 와 그리 안 풀리노? 오빠야는 그래도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와 선생님들이 대학 가라고 난리라 카던데”

“와 아이라. 너거 아버지가 그래서 더 속이 상하신 갑더라”

“엄마, 좀 힘들더라도 오빠야는 대학 보내거라. 내는 졸업하며 바로 취업 할테니까.”

“니는 그런 소릴랑 하지 말거래이. 너거 아버지 들으며 속이 천불난다.”

올해는 선별기에서 떨어지는 단감이 유난히도 크고 빛깔이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왔다. 청도택은 감농사라도 잘 돼서 자식들이 대학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너거 아버지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성질이 좀 별나서 그렇지 인정도 많고 성실했는데. 죄라면 없는 게 죄지. 너거 삼촌이 사업인가 뭔가 하다가 아버지가 중동에서 고생해서 벌어들인 돈까지 흘랑 날리고 너거 아버지가 다 덮어 썼다 아이가”

청도택과 정희가 멀리 산허리에 내려앉은 노을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동만도 한 개비 담배 연기를 날리며 상념에 젖는다. 가을 햇별은 벼를 황금으로 만들어 놓았다. 잘 익은 저녁놀이, 그 아래 펼쳐진 노란 들판이 살 따갑도록 눈부시게 펼쳐진다.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었다. 동만의 얼굴은 잘 익은 대추가 되고 역새 대궁도 백발을 만들었다. 노을이 모든 것을 태우고 익혀도 벼를 이기지 못 했다. 노란 들판에 밀려 한쪽으로 벗어난 석양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저녁이 온다. 밀려나서 더 아픈 그 들녘을 따라 봉명 다방의 황금색 티코가 달린다. 황금들녘에 비치는 조그만 티코 자동차가 황금노을에 묻힌다. 봉명 다방의 그녀가 미치도록 아름답고 슬프다. 동만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오늘밤 노란불빛 아래에서 그녀와 눈앞이 노래지도록 놓고 싶었다.

상념에 젖어 있던 동만은 지나가는 경운기의 굉음에 문득 현실로 돌아왔다.

“현수 아버지 뭐 하는교? 뭐 좋은 일 있나? 뭐 보고 그리 히죽히죽 웃는교?”

“아무것도 아이라. 당신이 오늘따라 이뻐 보이서 그란다 아이가.”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 하소. 저 양반이 오늘 와 저카노? 날아가는 참새 봉알을 봤나” 청도택이 동만을 측은하게 바라보니 참 많이도 늙어 보인다. 백발과 시커멓게 그을린 이마엔 굵은 왕주름이 일자로 그어져 있다.

“당신도 참 마이 늙었소. 오늘따라 내 맘이 와 이런고 모리겠소.”

동만이 겸연쩍게 청도택을 바라보니 그녀도 어느듯 신혼 때 고왔던 모습이 이젠 할머니가 다 돼 있었다. 길게 늘어진 저녁놀이 산 너머로 내려앉고 있다.

동만은 지금의 감 밭을 만들기까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어린 고사리 손으로 리어카를 밀며 현수와 정희가 따라온다.

“현수야 마이 힘들제?”

“아이라예, 아버지가 힘이 쎄서 잡아당기니 미는 거는 힘이 하나도 안들어예”

“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노?”

“내는 커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예”

“정희는 뭐가 될끼고?”

“아버지, 내는 커면 돈 마이 벌어서 엄마 아버지 외국 여행 시켜드릴라 캡니더”

“오냐, 너거 말만 들어도 아버지는 기분이 억수로 좋데이”

조막손으로 그 넓은 밭에 널린 돌맹이들을 주워 모아 리어카로 대 여섯 번씩 옮기고 나면 산 너머로 길게 붉은 저녁놀이 내려앉았다.

길 위에서 길을 찾고 길 밖에서 길을 찾았지만 길은 처음부터 없었다. 길처럼 보여도 그 끝은 언제나 막혀있거나 또 다른 갈림길이었다. 처음부터 내가 가는 것이 길이었고 길은 내가 만드는 것이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탄탄대로인 줄 알았던 그 길은 세상을 온통 혼란스럽게 하는 미로일 뿐 내가 가는 길 아닌 길을 흑시라도 누군가 다시 걸어주고 밟아준다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흑백의 제복을 입고 품 잡는 까치가 험하게 뒤틀린 나무에 앉는다. 동만은 오늘 아침에 까치는 왜 끊임없이 머리를 고덕거릴까 궁금해졌다. 비틀린 나뭇가지도 숨을 쉬는 모양인지 메마른 등껍질에 물이 올라있었다.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아 애태우며 갈증을 느끼던 사람들에게 까치는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 같았다.

“그래, 살아있으면 살아야지,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닌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게야”

살아야 하는 이유는 마른 세상을 위해 샘을 파야하기 때문이다. 까치가 머리를 고덕이는 건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기 위함이다

삼년을 심고 가꾼 끝에 드디어 단감 밭에서 첫 수확을 얻었다. 초록의 물결 속에 노란 감들이 익어갈 때는 제주도 밀감 밭에 온 착각이 들었다. 그 감들이 주홍빛으로 물들어갈 때 동만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네 식구가 모두 매달려 첫 단감을 딸 때 사업실패 후 종적을 감췄던 동생 동수가 고향을 찾아왔다.

“행님, 그동안 고생 많았지요? 못난 동생 때문에 행님하고 행수님이 이래 고생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됐다, 고마 해라. 그래도 이래 다시 고향에서 만나니 얼마나 반갑노? 니도 그동안 고생 마이 했제? 니도 다 잘 살아 볼끼라꼬 하다가 그리 된 거 아이가? 지난 일은 다 잊어뿌자.”

그때 푸른 작업복 차림의 현수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다. 얼굴이 상기된 표정으로 달려온다.

“아부지, 아버지 기쁜 소식입니다. 엄마, 내 합격했심미더”

“그기 무신 소리고? 합격이라이? 니 취직됐나?”

“그기 아이고예, 내 대학교 합격 했심더.”

동만은 그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 기쁜 마음에 근심도 함께 들었다. 내심 현수가 대학교에 가길 원했지만, 취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다. 대학교에 합격 했더라도 뒷바라지를 해 줄 형편이 못되니 마음이 언짢았다.

“아부지, 걱정하지 마이소. 돈 한 푼 안 드는 대학교에 합격 했심더”

“그기 무신 소리고? 돈 한 푼 안 드는 대학교도 있나?”

“국립철도대학교에 합격 안 했십니까. 철도대학교”

철도대학교는 국립으로 모든 게 국비로 지원되는 학교였다. 기숙사에서 숙식도 함께 해결된다고 했다. 청도택이 너무 놀라 눈시울을 적시며 현수를 바라본다.

“아이고, 우리 현수 장하고 고맙데이. 엄마가 면목이 없다 고마”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린 주홍빛 감들은 모두가 동만의 자식들이었다. 씨줄과 날줄처럼 뒤엉켰던 한여름 폭염과 장마가 물러가고 어느새 코끝에 스산한 바람이 야음을 틈탄 도둑처럼 밀려왔다. 북면 천마산 낙동강변 들판은 홍빛으로 물들고 어른주먹보다 큰 첫물은 바리바리 싸서 서울로 보냈다.

하늘아래 첫 단감을 따도 최고로 수고한 농부는 볼품없는 파지단감만 한 입 가득 베어 물었다. 농부는 비록 파지 감을 먹어도 행복이 가득하다. 꽃가마 타고 저 멀리 사라지는 제일 좋은 홍빛 내 새끼들을 바라보는 전지가위 쥐 손엔 땀물만 시커멓다. 도둑맞은 것처럼 가슴이 허전해도 한편으론 흐뭇한 게 농부들의 마음이었다.

“행님, 동네 사람들한테 행님 이야기 마이 들었십니다. 북면에서 단감 농사를 제일 먼저 시작 했다면서요.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행님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다 카데요.”

“오냐, 그래도 내가 성공을 하니까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 너도 나도 단감 농사 한다 아이가”

“행님 참 대단합니다. 인간사 새옹지마라 카더니만”

“인자, 현수는 한시를 덜었으니 우리 정희 대학 시킬 일만 남았네 그려. 허허허”

누런 황금들판과 홍빛 감 밭에 짙은 노을이 내려온다.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굴뚝을 타고 올라온다. 하루 일을 마친 경운기들이 등지를 찾아 들어오고 있었다. 막걸리 한 잔, 노을 한 잔 마시고 두 뺨에도 붉은 놀이 솟는다. 기분 좋은 웃음이 넘치고 먼 능선을 보니 온통 시뻘건 불천지다. 불이 붙는다.

대지가 혈떡일 땐 한바탕 소낙비가 제일이듯 목젓이 탈 때는 막걸리 한 잔이 최고다. 바싹 마른 나뭇잎, 푸석한 사람들의 얼굴도 가을 들판에선 반짝거리는 금잔디가 된다. 동만은 오늘따라 들이키는 막걸리가 지리산 토종꿀 맛 같다.

“정희 오매, 내일은 고구매 밭 한번 뒤집자.”

“행님, 내는 가불랍니다. 조만간 또 오겠습더. 형수님하고 고기나 좀 사 드시이소”

자고 가라는 동만을 뿌리치고 서서히 내리는 어둠 속으로 동수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동만은 억지로 동생이 호주머니에 찔러주고 간 신문지 뭉치를 펼쳐보니 지폐다발이 나왔다. 모두 이천만원이었다.

너무 맑아 시린 눈물 나는 하루, 반겨주는 이 없이 풍성하다 못해 겁나게 푸르른 감잎들을 본다. 가을, 또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붉은 홍시가 익어가도 아무도 쳐다보는 이 없는 시골 빈집 적막한 시간 속에도 감나무는 홀로 이별하며 내년을 기약한다. 우듬지 끝에 매달린 외로운 감 하나는 희망을 물어올 까치를 기다린다. 이별과 이별의 시간 속에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 또한 삶의 일부분이다. 이별이 있기에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것, 동만은 다시 찾아올 내일을 위해 나무처럼 별 바라기를 한다.

현수는 오년 만에 처음으로 좋은 인사고과를 받아서 연말에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았다. 부모님의 낡은 구두를 바꿔주려고 아내와 백화점에 갔다. 나선 김에 아내의 가을 옷도 한 벌 사 주려 했지만 그녀는 한사코 사양을 했다.

“자기야 고마 시장에 가자.”

싫다는 아내의 손을 잡고 백화점에 갔지만 입구에서부터 구십도 인사하는 종업원들을 보니 어쩐지 인사받기가 어정쩡했다. 매장에 들어서니 또 구십도 인사, 한발자국 떼면 또 인사를 한다.

“자기야 고마 시장에 가자”

현수에게 눈총을 주며 앞서가는 당당한 아내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하다. 낡은 스웨터에 대충 걸친 멜빵이 영락없는 시골 아낙네다.

“자기 겨울옷이나 한 벌 사자”

“내는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못 사”

실랑이를 벌이다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나오니 고개 숙인 채 걸레질하는 미화원이 지나간다. 출입문 지나 주차장엔 번쩍번쩍 광을 낸 중형차들이 지나간다. 백화점엔 삶에 지친 인생이 있고 삶을 즐기는 인생도 있었다

현수는 부모님들 구두만 사고 아내와 시장으로 향했다.

“아지매요, 이거 얼맨교?”

“이만 원입니더.”

“쫄매이 깎아 주이소”

“그리는 안 되는데, 만 구 천원만 주이소”

현수와 아내는 지갑에 돈이 있건 없건 시장인심이 더 좋았다. 시장에 가면 구십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오랜만에 현수는 아내와 국밥집에서 막걸리를 한 잔 했다. 아버지가 즐겨 마시던 막걸리를 현수도 어릴 적부터 즐겨 마셨다. 가게에 막걸리 심부름을 시키면 주전자에 든 막걸리를 훌쩍거리며 맛을 익혔던 것이다.

현수가 가장 좋아하는 술은 막걸리다. 가끔은 맥주나 소주 또는 양주, 정종 등 다양하게 맛을 보지만 일상적으로 즐기는 것은 막걸리였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그의 생긴 모습도 막걸리타입이라고 한다. 아무리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해도 막걸리스트아일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버렸다. 심심풀이로 음료수처럼 마시는 술이니 오죽하랴.

중학교 다닐 무렵엔 본격적으로 숨어서 막걸리를 마셨고, 고등학생 때에는 가끔 술로 인해 부모님의 속께나 썩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보니 지금도 동창들을 만나면 첫인사가 “야, 막걸리 온다.”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묻는 질문이 “요즘도 막걸리 많이 마시냐?”고 한다. 이제 좀 스타일 바꾸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 성격이 좀 싹싹하지를 못하고 과묵한 편이어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지만, 한번 친해진 사람들은 참 오래 가는 편이다.

먼 훗날 노년의 꿈이 있다면 양지바른 언덕위에 흙으로 집을 짓고 커다란 향아리를 몇 개 장만하여 동이마다 갖가지 술을 담아놓고 싶었다. 친구들을 초대하여 밤새워 이바구를 하고 뜨끈한 아랫목에 몸 지진 후 아침에 해장국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 것이다.

“내도 아버지를 닮았는지 이 막걸리가 참 좋더라고”

“이 일을 우짜노, 촌놈 아이라 칼까 봐 자기도 우찌 그리 막걸리를 좋아하노? 아버님 닮았나? 피는 못 속인다 카더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한 잔 하고 퍼떡 가자. 어무이 아버지 기다리시겠다.”

“누가 효자 아이라 칼까 봐 자기 부모는 그리 알뜰하게 챙기노? 마누라도 그리 잘 챙기봐라”

“올해는 감 농사가 잘 됐다 카더라. 거기 다 우리 이쁜 마누라가 부모님한테 잘 한 덕분 아이가? 고맙데이.”

신작로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가슴 속까지 시원한 바람이 현수를 향해 불고 있었다.



예시원

한국산문, 시와사람, 다시올문학 등단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 칼럼니스트
한국문협 회원 / 계간 詩와눈 주간, 심사위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외협력실 근무
시집 : 아내의 엉덩이 외 6 권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소설

저녁노을

허 빈

이 이야기는 60 살 먹은 남자와 26 살 여자의 연애 이야기다.

주인공 안빈(安彬)은 2년 전에 동갑이었던 아내와 사별하고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는 남자다. 몸이 약했던 아내는 두 남매를 성가시킨 후 죽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아내는 사랑스런 여자였고, 부부의 금슬은 매우 좋았다. 아내는 밝고 쾌활했고 매사에 긍정적이었다.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에도 열심이었다. 아내는 당신 때문에 행복했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죽으면 혼자 살지 말고 꼭 재혼하라는 당부까지 하고 눈을 감았다.

아내가 죽자 아들내외가 모시고 살겠다고 했지만 그는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었다. 아내와 살던 아파트에서 얼마간 혼자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옮겼다. 그는 공무원으로 오래 봉직했고 직급도 꽤 높아서 연금과 저축 등으로 그런 대로 여유 있게 지낼 형편이 되었다. 자식들을 결혼시키면서 자립의 근거도 어느 정도 마련해 준 터라 별 걱정이 없었다.

그는 죽은 아내를 본받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건강을 위해 등산과 헬스클럽에도 열심히 다녔다. 뒤늦게 컴퓨터도 배웠다. 그곳은 바다였다. 자유로운 향해에 심심한 줄 몰랐다. 특히 카페와 블로그는 그에게는 새롭고 흥미로운 신천지였다. 안빈에게 그 일이 벌어진 것은 그가 한 여자아나운서 팬들로 구성된 동호인 카페에 우연히 가입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신문에 난 한 여자아나운서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그 신문은 그가 구독하는 신문도 아니었다. 그날 아침, 그는 모처럼 운동 삼아 근처 야산 에 올랐다가 전날 밤 친구들과 마신 술 때문에 화가 나있는 위장을 달랠 요량으로 콩나물해장국으로 유명한 한 식당에 들렀고,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집어 든 신문에서 그 아나운서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그것은 인기인과 팬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사이버 팬클럽에 관한 인터뷰 형식의 기사였다.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바라본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날씨쯤은 상관없다는 듯 길가의 나무와 풀, 꽃을 꿈꾸듯 바라보며 다가선 그 여자는 바로 황혜숙 아나운서였다." 기사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아나운서 황혜숙, 안빈은 그녀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죽은 아내를 떠올렸다. 아내는 황혜숙을 무척 좋아했고 그녀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뉴스도 그녀가 앵커로 나오는 것만 시청했다. 그가 전생에 딸이라도 되냐고 말했을 때, 아마 그런지도 모르면서도 자기는 무조건 그녀가 좋고 끌린다고 했다. 아내는 아들이 아직 총각일 때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녀와 연애 한번 해보라고 부추기까지 했다. 그도 아내처럼 황혜숙을 좋아했다. 아내와 이미지가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다.

안빈은 신문에 난 황혜숙 팬클럽 카페와 홈페이지 주소를 메모했다. 그는 오피스텔로 돌아오자마자 <황혜숙 사랑>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했고 '즐거찾기'에 등록했다. 그날 저녁 그는 "나는 황혜숙이 좋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황혜숙의 외모에서 느껴지는 매력과 상투적이 아닌, 뭔가 늘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모습이 돋보이고, 아내가 특별히 좋아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녀를 볼 때마다 죽은 아내의 젊었을 때 모습이 생각난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과시모도>라는 닉네임으로 올렸다.

뜻밖에도 글에 대한 반응과 관심은 많은 리플로 나타났다. 글도 글이지만, 대부분 젊은이로 구성되어 있는 회원의 성격상 60살이라는 나이가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인 듯했다. 안빈은 이외의 반응이 재미있었다. 얼굴을 숨기고 젊은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싫지 않았다. 짝사랑 하는 귀부인을 찾아 가면무도회에 스며든 기분이었다.

안빈이 <에스터>라는 한 젊은 여자가 보내온 메일을 받은 것은 그 글이 나가고 며칠 후였다.

과시모도님, 안녕하세요?

에스메랄다를 사랑했던 노트르담의 증지기 과시모도인가요?

선생님의 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회원정보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연세에 감각이 그렇게 젊으신지. 선생님의 글은 펍 감동적이었습니다.

결국 두 번 놀란 셈이지요.

과시모도님의 나이에 놀라고, 글에 놀란 것이지요.

뭐 하는 분이세요?

에스터로부터

몇 번의 메일이 오간 뒤 에스터가 먼저 만나자는 제의를 해왔다. 직장일 때문에 토요일이 좋을 것 같고, 점심시간쯤에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제의였다. 만날 장소는 에스터가 정했는데 교보문고 연극/영화서적 코너가 좋겠다고 했다. 별로 사람이 붐비지 않는 코너라 쉽게 알아 볼 수도 있고 먼저 온 사람이 책 구경하면서 기다리기에 좋을 거라는 의견이었다. 안빈 역시 그런 곳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동의했다.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젊은 여자를 기다리는 것은 어쩐지 쑥스럽고 부자연스러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토요일 오후 1시 약속시간에 맞춰 안빈은 교보문고로 나갔다. 연극/영화 코너는 한 쪽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몇 사람이 서가 앞에서 책을 꺼내 보거나 책 제목을 훑어보면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약속시간 보다 좀 빠르기도 했지만 그 나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는 없었다. 안빈은 시나리오에 관련되는 책을 한권 꺼내들었다. 그러나 모든 감각기관은 곧 나타날 에스터에게 집중시키고 있었다.

"선생님, 과시모도님이시죠?"

안빈이 서있던 서가 너머 반대편에서 한 아가씨가 돌아 나오면서 밝게 웃었다. 에스터였다.

그녀는 안빈이 잠시 책읽기에 빠져 있는 동안에 다른 쪽 통로로 온 듯 했다. 그 시간에 그곳에 있는 나이든 사람은 안빈 밖에 없었으므로 그녀는 쉽게 알아봤을 것이다.

에스터의 첫 인상은 황혜숙과 너무나 닮아있었다. 에스터는 밝고 명랑하고 스스럼없는 사랑스런 아가씨였다. 그날 그들은 한 조출한 레스토랑에서 첫 데이트를 가졌다. 식사를 하고 후식과 커피를 마시면서 근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제시간 같이, 오랜만에 밖에서 시간을 갖는 부녀같이 편안했다.

에스터가 황혜숙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래서 대학도 신방과를 나왔는데 실력이 없는지 운이 없는지 몇 번의 도전에서 실패했다고 했다. 말하자면 황혜숙은 그녀의 우상이었던 셈이다. 에스터는 그 꿈을 접었다고 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영화사 기획일도 재미있고 만족스럽다고 했다. 어쩌면 비전이 더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자신감을 들어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일에 실패했을 때,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자신의 방식이라 했다. 아무튼 그녀는 밝고 쾌활하고 씩씩한, 몸과 마음이 매우 건강한 처녀였다.

에스터는 안빈의 신상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며 궁금해 했다. 고향이 어딘 지, 어떤 일에 종사했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내는 무슨 병이었는지 등등을 슬쩍슬쩍 지나가는 말처럼 묻곤 했다. 그녀는 안빈의 죽은 아내에 대해서 특별히 궁금해 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에 안빈은 좀 민연했다. 맞선보는 기분이 들어 선을 많이 본 모양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하하, 제가 좀 웃기지요. 선생님 탓이에요. 선생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매력적이세요. 선생님도 제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 보세요."

에스터, 본명은 박은혜라 했다. 아버지는 꼭 10년 전 그녀가 16살 중 3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타계했다고 했다. 그녀는 외동딸이었고 그때까지 자신의 삶에 전부를 채워주던 아버지를 어느 날 한순간 그렇게 허망하게 상실했을 때의 충격과 절망에 대해 말할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비쳤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꼭 선생님 연세가 되셨을 텐데. 선생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엘렉트라, 아가멤논의 딸 엘렉트라에 대해 아시지요?"

"엘렉트라? 엘렉트라 콤플렉스 말인가?"

"제가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있나 봐요. 선생님에 대한 관심도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 나이에 그렇게 아버지를 잃은 충격은 컸겠군. 에스터도 그랬겠지만 어머님의 충격이 더 컸겠군. 어머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데?"

"쉰셋이세요. S 여고 국어 선생님이로 계세요."

그날, 에스터 박은혜와의 첫 데이트는 그렇게 끝났다. 안빈은 박은혜가 이것저것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헤어질 때 박은혜가 그랬다. 선생님이 먼저 테이트 신청하시기가 숙스러우실 테니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고. 박은혜는 사려가 깊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예쁘고 매력적인 아가씨임에 틀림없었다.

안빈은 박은혜를 만난 후 다소 고조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그 안에 몸을 푹 담그고 죽은 아내를 떠올리며 오랜 상념에 빠져 들었다. 그는 욕조 속에서 깜박 잠이 들었다. 그러다 거실 쪽에서 울리는 전화 벨 소리에 소스라쳐 잠을 깼다.

"아버지!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딸이었다. 딸은 다소 화난 목소리였지만, 통화가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시집간 딸은 혼자 있는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할 겸 자주 전화를 했다.

"저녁에 김 서방이랑 갈게요. 오랜만에 식구끼리 저녁이나 같이해요. 동생부부하고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휴대폰 제발 좀 가지고 다니세요. 왜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무거우세요? 가벼운 것으로 바꿔 드릴까요?"

하필 오늘 같은 날 때 지어 온다는 거야. 딸은 박은혜보다 여섯 살이 많은 서른세 살에다 다섯 살 먹은 외손자 놈까지 있다. 컨디션이 안 좋으니 다음에 하자고 할까. 그러면 딸은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해서 더 기를 쓰고 올 것이다. 딸은 제 어미가 돌아간 후 자신이 엄마 대신 아버지를 돌보아야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날 식구들과의 저녁모임은 자주 가던 식당에서 이력저력 보냈다. 안빈은 평소와 같은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이 쉽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번잡스럽게 나대는 외손자 녀석 말 간섭으로 속내를 숨기려고 애썼다. 그러면서도 안빈은 줄곧 낮에 만났던 박은혜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뭘 그리 생각하세요.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어요." 역시 딸은 예민했다. 그는 황급히 "아니, 왜? 안 좋아 보여. 이상 없어. 그냥 몸살기가 좀 도는 것 같기는 한데...." 하며 얼버무렸다

박은혜는 애인처럼 수시로 전화를 걸어 왔고 자신의 일상에 관한 시시콜콜한 일들을 재미있게 말하기도 하고, 안빈 쪽의 일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내고 경청했다. 그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영화나 전시회를 관람하거나,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향기 좋은 포도주와 맛있는 식사를 즐겼다. 그들은 때로는 문학과 예술에 대해, 때로는 정치와 경제 등 세상사를, 때로는 컴퓨터와 사이버카페 이야기, 한창 화제작으로 인기 있던 TV 드라마에 대해, 그리고 <황혜숙 사랑>카페에 올랐던 글이나, 황혜숙이 진행하는 TV 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안빈은 박은혜를 만나면서 아내와 연애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더욱 죽은 아내가 그리웠다. 박은혜 역시 아버지의 모습을 자신에게서 찾는 눈치였다.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아직도 죽은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다. 안빈은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딸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다.

안빈과 박은혜는 이승을 떠나간, 그래서 현세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내의 그림자를 서로에게서 찾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근 반년의 시간이 두 사람의 마음의 가교 아래로 흘러갔다. 흘러간 시간이 서로에게 사랑과 신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무렵, 안빈은 박은혜로부터 뜻밖에도 육필 편지 한통을 받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 먼저 용서를 빕니다.

편지 받으시고 좀 의아하셨죠? 돌아오는 토요일에 만나기로 약속까지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저와의 만남을 사이버카페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필연을 찾아 오랜 노력 끝에 이루어낸 숙명적 만남이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승에는 분명히 계시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또 결혼할 나이에 접어들면서 제가 찾아야 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외롭게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그 엄마의 남자가 되어줄 분, 그리고 제 새 아버지가 되어 줄 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돌아가신 사모님이, 그리고 저희 엄마의 가슴속에는 돌아가신 아빠가 자리 잡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제 마음속에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아빠와 똑같은 아버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오는 토요일 만남에는 저 대신 저희 엄마가 나가실 겁니다.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시콜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일은 선생님께도 큰 결례입니다만, 엄마를 설득하는데도 오랜 시간 애를 먹었습니다. 좋은 친구로 지내시기에 서로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라서가 아니라 만만찮은 미인에다 성격도 좋으시고 매력도 있는 분이세요. 선생님, 썩스럽고 어색하고 불편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이팅 하세요.

선생님, 전에 언제 말씀 드렸던 미국유학이 계획보다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혼자 꾸며왔던 음모를 서두러 고백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꼭 나와 주실 거죠.

두서없는 글 용서하시고 제발 넓은 마음으로 헤량하여 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선생님의 딸이 되고 싶은 박은혜 올림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하겠다. 그 토요일에 안빈과 박은혜의 어머니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내 짐작에 두 사람이 안 만날 이유도, 서로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할 이유도, 나아가서 두 사람이 인생 후반전을,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 저녁노을은 얼마나 아름답던가!



허빈

-1942년 경북경산 출생

-육군대령 전역(1990년)

-연합뉴스 재직(1990년-2007년)

-계간지 <문학과이식> 신인문학상 수상등단(2008년)

-창작집 <첫사랑 마지막 사랑> 출간(2010년)

-번역서 <장진호 동쪽> 출간(2013년)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동화





동화동아리

지도교수: 임정진 교수님

◇ 동화

쿵쿵쿵 언덕의 비밀

김명자

학교수업이 끝나고 유진이는 운동장 벤치에 앉아 오빠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학년인 유진이는 이미 수업이 끝났지만 3학년인 민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시내에 있는 병원에 검진을 가는 날이어서 유진이를 데리러 학교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여기야 여기.”

민서가 같은 동네에 사는 승희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도 유진이를 발견하자 승희와 같이 뛰어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오빠가 초콜릿 사 줄게.”

“응, 너무 지루 했어.”

유진이는 일부러 더 뚱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빠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세 사람은 학교 앞 슈퍼에서 초콜릿과 먹고 싶은 것들을 각자 하나씩 사들고, 차들이 다니는 복잡한 길을 벗어나 논 사이에 있는 한적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수학문제가 쉬우니까 재미있었다는 얘기, 국어 선생님이 해 준 옛날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승희는 그 중에서 가야국에 있었다는 순장제도는 너무 마음 아픈 얘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민서도 그 제도는 너무 잔인하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유진이는 수업 시간만 되면 자꾸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장난을 치면서 뛰어 갔습니다.

“우리 쿵쿵이 언덕에서 놀다 가자.”

“그래.”

승희의 물음에 민서도 유진이도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조금 벗어나 위에 있는 언덕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쿵쿵쿵 쿵쿵쿵, 쿵쿵이 언덕은 사람이 위에서 뛰면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진이 할머니는 이 언덕에서 이런 소리가 난 것은 옛날부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소리가 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 언덕 아래 커다란 동굴이 있는지 몰라?”

“아빠가 그러는데, 아빠가 어릴 때 할아버지들이 여기를 파 본적 있었는데. 근데 파도 파도 흙만 나오고 동굴 같은 건 없었데.”

승희의 말에 민서가 이야기 해줬습니다. 세 사람은 금방 궁금증을 잊고, 책가방을 한 쪽에 모아 놓고서,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는 것처럼 뛰면서 빙빙 돌았습니다. 언덕 가운데에서 뛰다가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쿵쿵쿵 쿵쿵쿵 울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셋은 신나서 계속 뛰다가 소리가 자꾸 커지면서 메아리처럼 울리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만 뛰는 게 좋겠어.” 민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도 같은 기분이어서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언덕이 파도가 치듯 위아래로 움직여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 언덕이 움직이고 있어.”

승희가 소리쳤습니다. 똑 바로 서려고 힘을 모아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가 꺼지고 있어!”

민서가 소리치자마자 세 사람은 갑자기 거대한 자석으로 잡아당겨지듯 밑으로 빨려 내려갔습니다.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도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들어 본 적 없는 울림 같은 ‘응 - ’소리가 났습니다.

셋은 너무 갑자기 일어난 변화에 놀라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덕 밑으로 꺼진 게 분명해.”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승희가 들릴락 말락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봐.”

승희가 앞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에 의지하여 한참을 걸어가자 양 쪽에 길이 나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한쪽은 밝고 한쪽은 아주 희미한 불빛만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하지?”

승희가 말하자마자 말발굽 소리가 났습니다.

“저리로 가야겠어.”

민서는 승희와 유진이 손을 끌고 희미한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 길은 마치 동굴 같았습니다. 희미한 빛은 얼음으로 된 고드름 모양의 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숨을 죽이며 가만히 있자, 밝은 길에서 7마리의 말이 줄을 지어서 나왔습니다. 그 말의 등위에는 투구와 갑옷을 입은 장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장수들은 천천히 흙 안으로 들어와 중앙을 지나 세 사람이 처음 들어왔던 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추워.”

민서는 재빨리 유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다 지나가자 세 사람은 소리를 죽이며 뒷걸음치듯 천천히 길을 갔습니다. 길은 얼음이 많아 미끄럽고 울퉁불퉁했습니다. 한참을 걸었더니 푸드덕 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커다란 새가 앞에서 날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부엉이 같아!”

승희가 말을 마치자 그 새는 맹렬히 달려들어 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저리가, 왜 이러는 거야?”

승희가 소리쳤지만 큰 부엉이는 계속 세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드름 등이 비취주는 희미한 굴속을 계속 달렸습니다. 부엉이는 계속 쫓아왔습니다.

“저 부엉이가 우리 눈을 빼 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

온 몸이 오돌오돌 떨렸습니다. 앞으로 달려갈수록 점점 추워졌습니다.

“저기 봐!”

앞쪽에서 수많은 부엉이들이 인기척을 느끼고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엉이 떼들이 달려들자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벽에 붙었습니다. 순간 갑자기 뒤로 물러나지며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부엉이 떼들도 더 이상 달려들지 못하고 앞에서 빙빙 돌 뿐이었습니다.

“뒤에 누가 있어.”

유진이의 말에 뒤로 돌아 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름다운 소녀가 얼음 속에 잠자 듯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머리위에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핀을 꽂고 있고, 온 몸을 감싸는 하얀색의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녀의 모습을 바라보자 소녀의 옆에 푸르고 둥근 형체가 나타나 움직이며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저 부엉이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단다. 너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문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가야국 마 왕자의 저승세계란다. 나는 마왕자님과 결혼하기로 돼 있었는데, 전날 저녁 왕자님이 갑자기 죽었다. 그래서.....”

말하는 동안 공주의 얼음에 쌓인 몸은 물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님은 왕자님과 같이 순장 된 거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추운데 공주님 몸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죠?”

“너희들이 무덤에 들어오면서 오염된 공기를 들여왔기 때문에 내 몸이 녹는 거란다.”

승희의 물음에 공주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공주가 있는 무덤 안 전체가 얼음이었지만 밖의 인간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 올 때마다, 그 공기 때문에 녹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내 몸이 남아 있단다. 밖으로 나갈 때는 이곳의 정화된 공기까지 빠져나가면서 오염된 공기가 들어와 내 몸은 모두 녹을 거야.”

“.....”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몸이 녹아 버리면 자신의 몸이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 갈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주님, 우리도 집에 가야해요.”

유진이는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은 우리가 나가면 자기 몸이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승희는 슬프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자 공주가 말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곳도 낮이 된단다. 그러면 저 부엉이들도 잠이 들어. 다른 길로 되돌아 나가면 안 된다. 그곳은 마 왕자님이 모셔진 곳이고 호위무사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단다.”

공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계속 가다 보면, 많은 문들이 나온다. 그 중에서 반드시 두 마리의 물고기가 마주보고 그려져 있는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아름다운 곤충들을 조심해야 해.”

“감사합니다, 공주님.”

민서와 승희는 인사를 하고 유진이 팔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엉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달려가는 그들에게 문이 양 옆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문에는 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에는 악어가 그려져 있고, 세 번째 문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 네 번째에는 메뚜기가, 다음은 고양이, 토끼, 사자 등 문마다 다른 그림이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 물고기가 있어."

승희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은 힘껏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더웠습니다. 더위 때문에 목이 말랐습니다. 한참을 달리자 호수가 나왔습니다. 그 호수 가운데에는 불을 뿜어서 열을 내는 불구멍이 있었습니다. 물속에는 이빨이 달린 커다란 물고기 종류 들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위는 물고기들이 숨을 쉬느라 뻤은 커다란 물방울들이 보글보글 끊임없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들을 바로 먹어 버릴 거야."

승희가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가 문에서 본 그 물고기가 있어."

민서의 말에 세 사람은 물고기를 쫓아서 달려갔습니다. 이빨 달린 물고기들도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호수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두 마리의 물고기들이 등을 돌리고 멈추었습니다. 세 사람은 커다란 물방울이 생기자마자 얼른 뛰어 올라 물방울 위에 섰습니다. 두 마리의 물고기들이 계속 나가며 만들어놓는 물방울 위를 징검다리 건너 듯 달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오는 사나운 물고기들에게 호주머니속의 초콜릿을 던져주자 서로 싸우느라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고마워 물고기들아!"

호수 맞은편에 무사히 내린 아이들은 물고기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래 지체 할 수가 없는 아이들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니 숲이 나오고, 희미한 빛이 앞 쪽에서 비추어줬습니다. 계속 걸어가자 빛은 더 강하게 비추어줬습니다. 곧 이어 수백 명이 한꺼번에 들어 갈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빛은 그곳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 너무 예뻐!"

유진이는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를 질렀습니다. 민서와 승희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작은 조명을 달아 장식한 빛처럼, 입구부터 벽과 천장, 모든 면을 작은 곤충이 붙어서 서로 감박이면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반딧불일까?"

민서도 승희에 물음에 대답은 할 수 없었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에 그만 정신이 빠져버렸습니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빛은 온 주변을 휘감아서 모든 것을 잊게 했습니다.

"오빠, 우리 여기서 살자."

"안 돼, 어서 here를 빠져 나가야 해."

민서의 말에 승희와 유진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정신 차리라고 외치며 두 사람을 끌었습니다. 반짝반짝 빛을 내던 곤충 일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곤충들이 깨어나고 있어."

민서가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두 사람을 같이 끌고 가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마리의 곤충들이 벽에서 떨어져 날았습니다. 그때서야 승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같이 유진이를 끌고 달렸습니다. 점점 많은 곤충들이 벽에서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정신없이 달려

나간 세 사람은 다시 점점 어두워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계속 달리다가 갑자기 뭔가에 세계 부딪치며 세 사람은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애들아, 도대체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아이들에 뛰어왔습니다.

“너희들을 찾느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발각 뒤집어졌단다.”

아저씨는 멍하니 앉아있는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학교는 2 시경에 끝났다고 하는데, 너희들 가방만 여기에 있고 너희들은 온데간데없어져 해가 저도 나타나지 않으니.....”

밤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는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공주님은 어떻게 됐을까.....”

승희와 민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명자

전라북도 정읍 출생.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동화

옥상 위 옹달샘

이수린

달나라에 사는 늑대가 입을 찹 벌리며 하품을 했습니다. 건너편 지구의 바다에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작은 바닷가에서 튜브를 타고 놀던 토끼들이 물결 따라 크게 오르락내리락 거렸습니다. 파도소리만큼 큰 목소리들이 바닷물 위로 팡팡 튀어 올랐습니다. 수평선 너머 하늘이 홍차 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늑대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비운동을 할 시간입니다. 양팔을 우주위로 쪽 뻗었다 다시 천천히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땅을 짚으며 어깨를 지그시 누르자 늑대 입에서 저절로 '그르릉' 소리가 났습니다.

'빠-익' 하는 호루라기 소리가 백사장 위로 울려 퍼집니다. 하나둘 토끼들이 물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 토끼는 더 놀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늘만큼 빨간 모자를 쓴 구조대원 아저씨는 도망 다니는 개구쟁이들을 잡으러 다니느라 분주합니다. 공기는 여전히 덥습니다.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싶지만 어느새 하늘은 보라색 크레파스로 칠해지고 있습니다. 반짝이던 투명 바다 위로 붉은 석양이 웅단처럼 깔립니다. 토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래에 앉았습니다. 바다에서 향긋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에는 미역냄새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올 여름은 정말 덥구나."

아빠 토끼가 얼굴에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다 먹었다!"

아기 토끼가 오렌지 쥬스의 마지막 얼음을 입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할머니 토끼가 아기토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고향에만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덤지는 않을 텐데.”

할머니의 두 눈이 별처럼 반짝 거렸습니다.

“할머니 달나라 이야기 또 해주세요!”

할머니 토끼가 빙그레 미소를 짓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던 할머니 토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토끼들은 모두 달에서 왔단다. 할머니의 할머니 그 할머니의 그 할머니를 그리고 또 할머니의 할머니는 달에서 떡을 만들었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잘 익은 수박처럼 달콤합니다. 다른 토끼들도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 둥글게 앉았습니다. 토끼들 머리 위로 하늘이 점점 어두워져갑니다.

늑대는 제자리서 발을 굴린 후 우주 속으로 높이 뛰어 올랐습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크게 돌아 전속력으로 달 표면을 향해 뒷다리를 뻗었습니다. ‘퉁’ 소리가 나며 달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뒤로 살짝만 물러나 머리로 달을 톡 쳤습니다. 달이 간지럼을 타는 듯 부르르 떨며 옆으로 비껴났습니다. 춤을 추듯 늑대가 달을 건드리면 달은 조금씩 지구에 가까워져 갑니다.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우리들이 만드는 떡들은 아주 특별한 재료들로 만들어진단다. 하얀 별 가루에 은하수를 넣고 노을을 조금 섞으면 7 색깔의 알록달록한 떡이 된단다. 이걸 지구에 던지면 소나기와 함께 무지개가 되는 거야.”

아기 토끼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가끔 운석이 달에 떨어지면 그걸 곱게 부순단다. 동그랗고 하얀 떡 반죽을 그 위에 굴려 우주로 띄워 보내면, 멀리 퍼져나가다 행성에 고리를 만들어 주지. 고리가 있는 행성들은 몇 배로 더 아름다워진단다 꼭 왕관을 쓴 것처럼.”

“얼음 창고도 이야기 해주세요! 얼음 창고!”

아기 토끼가 폴짝폴짝 할머니토끼 주위를 돌았습니다.

“달에는 아주 큰 얼음 창고가 있는데 그 얼음들은 해만큼 환하고 눈만큼 차갑지. 태양이 너무 뜨거워 질 때면 달의 늑대가 얼음을 가져다 해에게 먹여 더위를 식혀 준단다.”

“그럼 달만 옆에 있으면 하나도 덤지 않겠네요?”

할머니의 눈꺼풀이 스르륵 올라갔습니다.

“물론이지 달은 바닷바람보다 훨씬 더 시원하거든.” 할머니는 아기 토끼를 향해 살며시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달을 여기로 가져오면 안돼요?”

“그건 불가능 하단다.”

“왜요?”

“달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달의 늑대뿐이거든.”

“달의 늑대요?”

“우리가 달을 볼 수 있는 건 매일 밤 달의 늑대가 지구까지 달을 물어다 주기 때문이거든.”

“만약 늑대가 우릴 볼 수만 있다면 부탁할 수 있는 건가요?”

아기 토끼의 귀가 쫑긋 해졌습니다.

할머니와 어른 토끼들은 고개를 가우뚱 거렸습니다. 달의 늑대와 대화를 해본 토끼는 달에 살았던 할머니의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옹달샘을 만들어요! 달을 가져 오느라 늑대는 몹시 힘들 거예요. 높은 곳에다 늑대가 마실 수 있는 옹달샘을 만들면 분명 늑대가 물을 마시기 위해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옹기종기 모인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토끼의 미간이 점점 퍼지는가 싶더니 양쪽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아빠 토끼가 모래사장을 뛰어다닙니다. 아빠토끼가 발을 뺨 때마다 '깡충깡충' 하는 소리가 납니다.

“저기 저 위에다 만들자꾸나!”

아빠 토끼의 손이 가리킨 곳은 바다 옆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어린 토끼들은 신이나 아파트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른들은 바람 빠진 미니풀장을 챙겨 곧장 아이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서둘러 시간이 별로 없어!”

아빠 토끼는 폭죽을 들고 헐레벌떡 맨 마지막으로 토끼들을 쫓았습니다. 어느덧 하늘에는 하나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구멍사이로 새하얀 빛이 쏟아집니다. 옥상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들은 미니풀장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나 둘 셋!”

아빠토끼의 박자에 맞추어 ‘후우-’ 하고 바람 넣는 소리가 옥상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기 토끼 불이 풍선처럼 커졌습니다. 목부터 머리까지가 새우처럼 빨개집니다. 이내 아기토끼는 뒤로 벌렁 넘어집니다. 토끼들 이마위로 송골송골 땀이 흘러내립니다. 미니풀장은 금세 완성 되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미니 풀장을 물탱크 옆으로 가져갑니다. 수도꼭지를 열자 깨끗한 물이 풀장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다음은 어떡하지?’

고민하던 토끼들에게 아빠토끼가 폭죽을 나누어 줍니다.

“신호를 알리자! 폭죽을 키고 다 같이 노래 부르자!”

핑핑 하는 폭죽 터지는 소리와 토끼들의 합창이 하모니를 이룹니다. 폭죽에 실린 토끼들의 목소리가 펄펄 날아옵니다.

늑대 귀에 열린 음악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니 작은 오르골 보석상자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빨간 루비가 있는 것 같다가 금세 초록빛 보라 빛으로 색이 바뀌었습니다. 늑대는 꿈꾸는 것 마냥 보석들에 빠져들었습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손을 뻗어가자 보석 뒤로 투명한 샘이 보였습니다.

‘쿵’하는 소리에 토끼들이 조용해 졌습니다. 아기 토끼는 할머니 토끼 뒤로 얼른 숨었습니다. 늑대는 쿵쿵 거리며 미니풀장 냄새를 맡더니 조금씩 물을 마셨습니다. 늑대가 머리를 들고 ‘아우~’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시원하다!”

토끼들 모두 함박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늑대님을 위해 만들었어요!"

아기 토끼의 대답에 늑대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늑대의 입가에 묻어 있던 물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비다!"

사방에서 깔깔 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름이 너무 더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달을 저희 가까이 두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 토끼가 늑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물론이지! 이렇게 시원한 물은 지구에서 처음 먹어봐!"

늑대가 자세를 낮추더니 곧 순식간에 하늘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와."

토끼들의 함성이 잦아질 때 쫘 둥그런 달이 공처럼 퐁퐁 거리며 토끼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늑대는 피뢰침에 달을 꽂았습니다. 팔빙수를 입안에 가득 넣은 듯 달에게서 시원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멀리서 보면 큰 레몬에이드인줄 알겠다!"

꼬마토끼 말에 모두가 맞장구를 칩니다. 토끼들은 남은 폭죽들을 가지고와 하늘에 쏘 올립니다. 하얀 불꽃 아래 토끼와 늑대가 춤을 춥니다. 아주 먼 옛날 할머니 토끼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이수린

부산광역시 출생, 경기도 용인거주
서울디지털대학교 재학중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시나리오동아리
<시나리오 스토리텔링>
지도교수: 백학기 교수님

☆ 시나리오

어린왕자는 왜 자기별로 돌아갔을까?

김추산

#1 숲 속 / 낮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빗살처럼 쏟아지고 있다. 졸졸 흐르는 개울을 지나면 푸른 잎이 무성한 느티나무 한 그루 우뚝 서 있다. 희끗한 머리결을 가진 50 대 후반의 민섭과 20 대의 지수와 성수가 숲길로 접어들어 느티나무 앞에 와서 발길을 멈춘다. 말없이 나무를 바라보는 민섭의 기억은 어느 새 20년 전 어느 날로 가 있다.

<자막> 20년 전

#2 미국 로스앤젤레스 / 낮

로스앤젤레스의 헐리웃 거리에 짙은 밤이 정렬해 있다. 스타의 거리 보도블럭 위에 스타들 이름이 새겨진 붉은 별들이 보인다. 사람들 틈에 카메라를 메고 바쁘게 걸어가는 민섭의 모습이 보인다. 울려오는 전화벨 소리. 길을 걸으며 손으로 전화기를 더듬는 민섭. 무심코 전화기를 귀에 댄다.

민섭 Hello.

전화기 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민섭 (여전히 걸으며 조금 큰 소리로) Hello. This is Min. Who's calling?

민지F (흐느끼는 목소리로) 오빠, 흐흐흑...

민섭 (미간을 살짝 찡그리며) 민지? 너 민지구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민지F 오빠, 오빠 어떡해... 주희 언니가...

민섭 (전화기를 고쳐 잡으며) 형수가 왜...무슨 일이야. 울지 말고 말해봐.

민지F 주희 언니가 어제 밤에 그만...(격하게 운다) 흐흑흑...

민섭 (긴장하며 떨리는 목소리) 무슨 소리야, 형수가 왜? 왜 그러는데?

민지F (여전히 울음섞인 목소리) 어 언니가... 죽었어...

민섭, 가던 걸음을 멈추고 길 옆에 있는 나무를 붙들고 선다.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을 맥없이 늘어뜨리며 거의 쓰러질 듯 주저앉는다. 메고 있던 카메라가 흘러내린다.

#3 인천공항 입국장 / 낮

공항 문이 열리며 민섭의 모습이 보인다.

#4 인천공항 정문 앞 / 낮

민섭,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 밖으로 나온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시다. 민섭, 눈이 부신 듯 눈살을 찌푸리며 손으로 해를 가린다.

#5 공항 택시게이트 앞 / 낮

민섭, 급히 택시를 불러세운다.

#6 택시 안 / 낮

민섭, 택시 기사에게 무언가를 말한다.

#7 도로 / 낮

택시, 미끄러지듯 공항을 빠져 나간다.

#8 대학병원 영안실 앞 / 낮

민섭, 택시에서 내려 급히 영안실 문으로 들어간다.

#9 영안실 안 / 낮

밝게 웃고 있는 주희의 사진에 검은 휘장이 들려있다. 주희의 친척과 형제인 듯한 몇 명의 하객만 있을 뿐 쓸렁하다. 주희의 어머니인 듯한 사람이 눈물을 머금고 민섭을 맞는다. 민섭, 가볍게 인사를 나눈 후 영정 앞에 흰 국화 한송이를 올려놓고 머리를 조아린다. 영정 사진을 바라보던 민섭의 눈이 머리에 꽂혀 있는 민들레 핀에 가서 머문다. 7년 전 어느 봄날의 일이 스치고 지나간다.

<자막> 7년 전

#10 대학 캠퍼스 안 / 이른 아침

대학 캠퍼스 안에 남녀 학생들이 삼삼오오 무리져 있다. 사진동아리 야외촬영 실습이 있는 날이다. 가벼운 차림으로 배낭과 여러가지 사진 도구들을 둘러메고 있는 학생들 틈으로 급한 걸음으로 뛰어오는 민섭이 보인다. 민섭은 뛰어오면서 학생들 틈에서 주희를 찾는다. 청바지에 노란 자켓을 입은 주희의 모습이 보인다.

민섭 (익살스런 표정으로 손을 이마에 대고 경례하는 시늉을 하며 친구들을 향하여) 아아, 늦어서 미안... 중요한 걸 잊고 와서 다시 갖다오느라고...

친구 (짓궂게 웃는 얼굴로 다가와 어깨에 팔을 두르며) 중요한 게 뭘까? 애인한테 줄 선물이라도 빠뜨렸던 모양이지...

민섭 (씩 웃으며 친구 떼어내고 큰 소리로) 이제 다 모인 건가? 혹 아직 도착하지 않은 친구 있는지 좀 봐줄래. (잠시 후 인원 점검 끝나자 경쾌하고 밝은 소리로) 이상 없으면 이제 출발한다. (손을 위로 번쩍 쳐들고 엄지와 중지 손가락을 마주쳐 "딱" 소리를 낸 후 검지 손가락을 펴서 앞을 가리키며) 자, 고고 앞으로!

#11 교외선 기차 안 / 아침

시끌벅적 떠들며 기차에 올라타는 학생들. 창가에 앉은 주희. 그 옆에 앉으며 웃는 민섭. 창밖을 보고 있는 주희의 손에 무언가 쥐어준다. 민들레꽃이 새겨진 자그마한 머리핀이다. 여자는 핀을 보더니 웃으며 민섭에게 기댄다. 민섭이 여자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슬쩍 포갠다.

#12 역전 안 기차 레일 위 / 아침

열차 미끄러지듯 역전을 빠져 나간다.

#13 숲 속 / 낮

젊은이들이 숲길로 접어든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친다. 온갖 봄꽃들이 피어있다. 숲은 젊은 남녀의 떠드는 소리와 웃음소리, 새들의 노랫소리와 개구리 울음소리까지... 생동하는 기운으로 가득하다. 학생들은 자리를 잡은 후 각자 배낭에서 카메라를 꺼내기도 하고 둘러메고 있던 카메라를 벗기기도 한다. 민섭도 카메라를 집어든다. 사진의 각도를 잡던 민섭의 카메라 안으로 주희의 모습이 들어온다. 주희의 머리엔 민섭이 건네준 민들레꽃 핀이 꽂혀있다. 민섭은 주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14 대학병원 영안실 / 낮 (현재)

영정사진에 웃고 있는 주희의 사진이 민섭의 카메라에 잡혔던 바로 그 사진이다. 민섭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추스리느라 급히 영안실을 빠져나온다.

#15 영안실 현관 앞 / 낮

현관 입구에 서서 잠시 마음을 다스린 민섭이 전화를 건다.

민섭 (가라앉은 목소리) 여보세요. 민지야 나야.

민지F (반가운 목소리) 응, 오빠. 어디야?

민섭 (벽에 기대어 서며) 병원에 와 있어.

민지F 그랬구나. 나는 아이들 데리고 있느라 가보지도 못했어. 언제 올 거야?

민섭 이제 가려구. 일단 가서 얘기하자.

민지F 그래... 좀 있다 봐.

#16 동네 입구 / 낮

주희 집으로 가는 동네 입구이다. 가는 길목에 슈퍼마켓이 하나 보인다. 민섭, 갑자기 생각난 듯 슈퍼마켓으로 들어간다.

#17 슈퍼마켓 안 / 낮

민섭, 아이들 줄 과자를 고른다.

#18 주희의 집 대문 앞 / 낮

손에 여행가방과 과자 봉지를 든 채로 주희의 집 앞에 도착한 민섭, 잠시 서있다 벨을 누른다. 인터폰에서 소리가 들린다.

민지F 누구세요?

민섭 응 나야.

민지F (반가운 목소리) 오빠 왔구나.

대문이 열린다. 민섭, 문을 열고 들어선다.

#19 현관 앞 / 낮

민지, 현관 문 열고 나오고 민지 뒤로 아이들 따라 나오며 민섭을 뽀뽀하게 쳐다본다.

민지 (반가우면서도 목이 메인다) 오빠.

민지가 민섭에게 다가가자 민섭이 민지를 말없이 안는다. 민지의 작은 어깨가 가볍게 들먹인다. 민섭, 민지의 어깨를 토닥이다 양 팔 잡고 얼굴 보며 말한다.

민섭 그래, 니가 고생이 많구나.

아이들, 민지의 치마자락을 붙들고 민지 뒤에 살짝 숨어 민섭을 바라본다.

민지 (아이들 번갈아 바라보며) 이수야, 성수야. 삼촌이야. 인사드려야지.

성수 (쭈뼛거리며 손을 배꼽에 포갠 후 허리를 굽히며) 안녕하세요.

지수 (배꼽에 손을 모으며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민섭 (지수와 성수를 번갈아 쳐다보며) 아, 이수하고 성수구나. 안녕!

지수와 성수, 아직도 경계의 빛을 띠고 있다. 민지가 민섭에게

민지 (민섭의 팔에 손을 얹으며) 오빠, 들어가. 들어가서 얘기해.

민섭 (민지 쳐다보며) 그래. 들어가자.

#20 주희의 집 거실 / 낮

민섭 (아이들 보며) 급히 오느라 이수랑 성수 선물도 못사왔네. (과자 봉지 내밀며) 대신 이거.

아이들 쳐다만 보고 있다.

민지 (아이들 보며) 받아야지 이수야, 삼촌이 너희들 주려고 사오셨는데.

지수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 과자 봉지 받으며) 감사합니다.

민지 (아이들 쇼파 쪽으로 밀며) 가서 사이좋게 먹고 있어.

아이들, 쇼파로 가서 앉으며 민섭의 눈치보고 과자 봉지 연다. 민섭, 민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 간다.

#21 방 안 / 낮

민섭 (다그치듯)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지 (손수건으로 눈물을 짖어 닦으며) 글썩 언니가... (말을 더듬으며) 약...약을 먹었어,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어.

민섭, 어이없는 표정을 짓다 잠시 벽에 머리를 기대고 선다. 말없이 민섭을 바라보던 민지가 민섭의 어깨에 손을 갖다 얹는다.

민섭 (돌아서서 민지 보며 비통한 목소리로)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를 수 있니? 어떻게...

민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나? 가끔 와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안심하고 있었지. (단호한 목소리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선택을 한 건 이해할 수 없어. 자기 혼자 몸도 아니고 저렇게 어린 것들이 있는데... (목소리 한 톤 높이며) 암튼 옛날부터 지독한 구석이 있긴 했어. 큰오빠 그렇게 되었을 때도 눈도 꿈쩍 았더라구. 그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렸는지 알아. 독종이라고...

민섭 (얼른 말을 가로막으며) 옛날 일을 들먹거리 뭐해. 다 지나간 일인데...

민지 (여전히 불멘소리로) 작은 오빠는 몰라. 그 때 큰오빠가 미쳐 날뛰는데도 언니가 얼마나 냉정하고 차갑게 대했는지...결국 큰오빠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말았지만...그리고 나서 가보지도 않는 것 같더라구. 아무리 미워도 자기 남편인데 어떻게 그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건지 몰라. 가끔 보면 딴 세상 사람같은 표정을 하고 있곤 했어.

민섭, 민지의 말을 건성 들으며 형수의 침대 옆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눈으로 화장대 위를 더듬다 문득 그 위에 놓여 있는 민들레꽃 머리핀을 발견한다.

민섭, 조용히 다가가 핀을 집어 들고 물끄러미 쳐다본다.

민지 (민섭 옆으로 다가서며 불통스럽게) 오빠, 그 핀 말야.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핀인가 봐. 죽는 날도 죽기 전까지 그 핀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

민섭, 몸에서 기운이 짝 빠져나감을 느낀다.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으나 겨우 버티고 서 있는 민섭. 핀을 쥐 민섭의 손이 경련을 일으킨다. 불현 듯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스치고 지나간다. 7년 전 어느 늦은 가을 날이다.

<자막> 7년 전 어느 가을

#22 민섭의 집 앞 / 저녁

바람이 불고 날씨가 을썩년스럽다. 길가에는 마른 낙엽이 이리저리 굴러다닌다. 민섭 집에 도착한 주희. 집 앞에서 민섭에게 전화를 건다.

주희 저예요. 저 집에 도착했어요.

민섭F 응, 일찍 왔네. 나 지금 가고 있는데 길이 많이 막히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밖

에 있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미선 알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기다릴게 서둘지 말고 천천히 와요.

#23 도로 위 버스 안 / 저녁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차가 거의 서 있다. 민섭은 버스 안에서 시계를 들여다 보며 안절부절이다. 시간은 이미 8시를 지나고 있다.

민섭 (혼잣말로 짜증스럽게) 이그, 이 놈의 교통체증... (단호한 목소리) 좋아, 니가 안가면 내가 간다.

민섭, 버스 기사에게 문을 열어달라 한다.

#24 도로 / 저녁

버스에서 내린 민섭은 차 사이를 지나 집을 향해 뛰기 시작한다.

#25 민섭의 집 현관 / 저녁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의 뒷모습. 남자는 현관에 놓인 여자의 구두를 본다. 잠깐 주춤하고 서있다가 민섭의 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발걸음이 흔들린다.

#26 민섭의 방 / 저녁

주희, 방에서 민섭의 사진을 보고 있다가 문소리 들리자 문 쪽으로 몸을 돌린다..

주희 (문쪽을 향하여 가며 반가운 목소리로) 왔어요. 빨리 왔네.

갑자기 불이 꺼지자 방문 앞에서 주춤 멈춰서는 주희. 문이 열리며 사내가 주희에게 안겨온다. 술 냄새가 진동한다. 주희는 의외의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그 사내에게 몸을 맡긴다.

#27 도로 / 깊어가는 저녁

민섭은 달리고 또 달린다. 집이 점점 가까와져 온다. 문을 닫으려는 꽃집이 보인다.

#28 꽃집 앞 / 저녁

민섭은 꽃집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가 꽃집으로 급히 들어간다.

#29 꽃집 안 / 저녁

민섭, 코를 벌름거리며 꽃향기에 취한 표정이다. 민섭은 노란 들국화를 골라 포장을 부탁한다. 포장된 들국화를 들고 주머니를 뒤적이는 민섭. 반지가 만져진다.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30 도로 / 저녁

꽃 가게를 나온 민섭이 다시 집을 향해 달린다.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볍다.

#31 민섭의 방 / 불이 꺼진 어두운 상태(실루엣으로 두 남녀의 모습 연출됨)

두 남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 누워있다. 주희는 사내의 가슴을 향해 얼굴을 묻는다. 사내가 주희를 끌어안으며 말한다.

사내 (허 꼬부라진 소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러려고 했던 건 아인데... 그런데 말야, 너는 모를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너를 좋아했는지...

순간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 앉는 주희. 얼른 이불로 몸을 가리며 소리친다.

주희 (공포에 쌓인 목소리) 다...당신 누구야. 민섭씨 아니었어? 약~

#32 민섭의 집 현관 / 밤

그 때 민섭이 현관문 열고 들어온다. 집 안은 캄캄한데 방에서 여자의 비명소리 들린다. 민섭은 급히 불을 켜고 방을 향해 달려간다. 방문을 연 순간, 주희는 이불로 몸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고 민섭의 형 민준이 벗은 몸으로 침대에 앉아있다. 민섭의 손에 들려있던 꽃다발이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진다.

#33 민섭의 집 마당 / 밤

형의 멍살을 잡고 마당으로 나온 민섭이 형을 향해 주먹을 마구 날린다. 민준은 주먹을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맞고 있다. 주먹을 날리던 민섭이 쓰러져 있는 형을 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 뜯으며 씩씩거리다 흑흑 흐느낀다.

#34 공항 대합실 / 낮

민준 (주빚거리며) 정말 미안하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어. 대신 내가 주희 씨 행복하게 해 줄게. 나 주희 씨 정말 사랑해. 미안 미안하다.

민섭 (격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 닥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마. 이제 가면 다시는 한국땅 안 밟을 거야. (형을 노려보 듯 똑바로 쳐다보며) 대신 술이나 좀 끊어. 제발... (애원하는 목소리로) 제발, 부탁이야.

민준 (주눅들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래... 그래, 내가 술 끊으마. (동생의 팔을 붙들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가서 잘 지내거라.

민섭, 민준의 팔을 뿌리치며 대답 대신 뒤도 안돌아보고 비행기장 안으로 들어간다.

#35 공항 밖 / 낮

날씨가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하다. 비행기 한 대가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36 주희의 방 / 낮 (현재)

민섭, 민들레꽃 핀을 손에 쥔 채 넋이 나가 있다.

민지 (민섭을 향하여) 오빠,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똥히 해.

민섭 (순간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얼버무리며) 으음, 그냥. 아무것도 아냐.

민지 (걱정스러운 듯) 그나저나 오빠, 저 아이들을 어쩌면 좋지?

민섭 (별 관심 없다는 투로) 으흠, 글썸다.

민지 오빠는 또 미국으로 떠나야 하잖아.

민섭 (고개를 주억거리며) 응. 그래야지.

민지 (딱하다는 듯) 누구 하나 저 아이들 돌봐 줄 사람이 없으니...

민섭, 잠시 할 말을 잊고 서 있다. 민지도 말없이 서 있다가.

민지 (조심스럽게) 오빠, 시설을 좀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민섭 (민지 쳐다보며) 시설?

민지 고아원 그런데 말야. 아이들 말아서 돌봐줄만한 곳.

민섭 (말끝을 흐리며) 글썸... 나야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민지 (민섭 보며) 오빠는 어쩔 그래. 저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민섭 (조금은 차갑게) 나야 갈 사람인데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니.

민지 (민섭을 옆눈으로 흘기며 뽀로통한 말투로)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 아냐. 가족이라곤 나하고 오빠 뿐인데.

민섭 (머리를 저으며 신경질적으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내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다구. 아이들 문제는 니가 알아서 해. 니가 다 알아서 하라구.

민지 (민섭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따지듯이) 오빠, 오빠 왜 그래. 오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아니었잖아. 얼마나 인정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변했어. 오빠 미국에 가서 살더니

왜 그렇게 냉정해진 거야. 큰 오빠가 저러고 있으니까 오빠라도 나서서 아이들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야 할 거 아냐. 아이들이 무슨 죄야. 나는 아이들 생각하면 잠도 안오고만.

민섭 (버럭 화를 내며) 그럼, 나더러 어쩌라구. 너는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기나 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심정으로 한국땅을 떠났는지 알기나 하나구. 다시는 이 땅을 밟지 않을 생각으로 여기를 떠났다구.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큰소리 치는데. 니가 뭘 안다고 나한테 큰소리 치냐구.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움켜잡으며) 나도 지금 미칠 것 같애. 미칠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아이들 생각을 해. 어떻게 아이들 생각을 하나구.(소리를 버럭 지르듯이)

민지 (어이 없다는 듯) 오빠. 왜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 아이들 걱정돼서 오빠하고 의논하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오버하는데. (조금은 걱정스러운 듯) 오빠 무슨 일 있는 거야? 오빠 같지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오빠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구. 오빠 도대체 왜 그러는데.

민섭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얼버무리며) 아 아니야. 그냥 이런 상황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서...(말끝을 흐리며)

민지 (고개를 저으며) 예휴, 그래 오빠. 나도 처음엔 충격이 엄청 컸어. 오빠라고 왜 안그렇겠어. (혼잣말처럼) 그치만 지금 당장 어쩌자는 건 아니었는데... (민섭 보며) 암튼 좀 더 생각해 보자구...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흐른다. 민지는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고 민섭은 말없이 화장대 위에 놓인 민들레 꽃핀을 쳐다보고 있다. 잠시 후, 민섭이 민지에게.

민섭 (차분한 목소리) 민지야, 나 아이들 데리고 소풍 좀 다녀올까?

민지 (의외라는 듯) 소풍? 갑자기 소풍은 왜?

민섭 그냥. 아이들하고 서먹한 것도 풀고 바람도 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 일도 말해 줘야 할 거 같고. 근데 아이들이 나하고 가려고 할지 모르겠네.

민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글썸. 아이들이 아직 서먹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풍 간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엄마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문 쪽으로 가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봐야겠네.

#37 거실 / 낮

민지가 방 밖으로 나가자 민섭도 뒤따라 나온다. 아이들, 민섭이 사다준 과자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이 방송 중이다.

민지 애들아, 뭘 그리 재미있게 보고 있니?

지수 동물의 왕국이요.

민지 지수야 성수야, 너희들 삼촌하고 소풍 가지 않을래?

아이들 (민지 쳐다보며) 소풍?
민섭 (아이들 말 받으며) 그래 소풍. 삼촌이 너희들하고 소풍 가고 싶은데... 같이 안갈래?
아이들 (서로 쳐다본 후 멋적어 하며) 어디로 가는데요.
민섭 (웃으며) 음, 글썸. 좋은 데로 가지 뭐. 어때 같이 갈래?
아이들 (서로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인 후) 네.
민지 (아이들 보며) 그래. 그럼 내일 소풍 가는 거다.
아이들 (신난다는 듯 큰 목소리로) 네.
민지 (민섭 쳐다보며)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소풍 갈 수 있도록 준비해줄께.
민섭 (민지 보며) 그래, 고맙다.

#38 교외선 역전 앞 / 아침

민섭은 민지가 챙겨준 도시락 가방을 둘러메고 아이들은 제각기 양증맞은 작은 베낭을 메고 있다. 교외선 역전 앞엔 야외로 떠나는 인파가 제법 많다.

#39 교외선 열차 안 / 아침

열차가 출발하자 아이들은 차창에 매달려 좋아라 한다. 차창 밖으로 봄의 전경이 스쳐 지나간다. 꽃핀을 머리에 꽂은 주희의 얼굴이 햇살 사이로 크로즈업 된다.

#40 숲(주희와 함께 야외촬영 갔던 숲) / 오전

숲길로 접어들면 작은 개울이 보인다. 개구리의 울음소리와 새 소리가 들린다. 봄꽃들이 화사하게 피어있다. 민섭과 아이들이 숲길로 걸어 들어온다.

아이들 (두리번거리며 흥분한 목소리로) 야, 조타아~
지수 (밝고 한톤 높은 목소리로) 와, 저기 꽃 좀 봐. 성수야 꽃 보이지?
성수 (밝고 환해진 얼굴로) 응 누나, (말이 빨라지며 목소리 커진다) 누나누나 근데 저기 (손가락으로 작은 바위 쪽을 가리키며) 저기 좀 봐봐.
지수 (성수 가리키는 곳을 보며) 어디? 뭔데?
성수 (팔을 더 길게 뻗으며) 저기, 저어기 바위 위 좀 봐봐. (바위에 앉아 있는 개구리를 가리키며) 저... 삼촌, 저거 뭐예요?
민섭 (성수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며) 어디보자, 아 저기... 바위에 앉아 있는 거 말이지? 개구리네 개구리. 겨울 잠자던 개구리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나왔나 보구나.
성수 (신기한 듯 쳐다보며) 누나, 개구리래. 누나는 개구리 봤어?
지수 (당연하다는 듯) 그럼. 지난 번에 텔레비전에서 봤잖아.
성수 (입술을 삐죽이며) 치, 텔레비전 말고. (목소리 톤이 높아지며) 진짜로 말이야.

지수 (다소 의기소침해지며) 아니, 진짜는 처음 봐.

민섭, 말없이 대화하는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다.

#41 계곡 바위 위 / 낮

민섭이 아이들과 도시락을 먹는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모처럼 나온 소풍이 즐거운가 보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민섭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민섭 (애써 다정한 목소리로) 얘들아, 삼촌이 이야기 하나 해줄까?

아이들 (삼촌 바라보며) 네.

민섭, 담담한 표정과 건조한 목소리로 앞을 응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민섭 아주 조그만 별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어. 어린 왕자는 세상을 구경하고 싶었지. 그래서 여행을 시작했어. 여러 별을 거쳐서 지구별에 오게 됐어.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구경할 게 너무 많았어. 이런저런 구경을 하던 어린 왕자 앞에 어느 날 여우가 나타났어. 어린 왕자는 이 여우와 친구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친구가 되는지 모른 거야. 그 때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친구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게 돼.

아이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삼촌을 쳐다보며 열심히 삼촌의 말을 듣는다.

민섭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친구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져야 한다고 말해줘. 이 말은 서로 관심을 갖고 조금씩 가까이 가서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중요한 걸 또 하나 가르쳐 주게 돼. 그게 뭐냐면, (조금 퓌름 들이다가) 만약에 친구가 생긴다면 그 친구에 대한 책임도 같이 생긴다는 거야.

지수 (삼촌 올려다 보며) 책임이 뭐예요?

민섭 (지수 바라보며) 음, 책임이라는 건... 음... (잠시 퓌름 들이다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걸 말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일이 있는 거거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일 경우는 더 그렇지.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에게 해야 할 일을 다해야 진짜 친구가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수 (고개 끄덕이며) 네.

민섭 (지수 쳐다보며) 그럼 이야기 계속 한다. 여우의 말을 들은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 두고 온 장미가 생각났어. 어린 왕자와 붉은 장미는 서로 친구였거든. 그 사실을 어린 왕자가 잊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우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다시 기억하게 된 거지.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기가

사랑했던 꽃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시 자기 별로 돌아가게 되지...(말끝을 흐리며)

민섭, 잠시 먼 허공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가 아이들을 그윽히 바라본다.

성수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삼촌, 근데 어린 왕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민섭 (성수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음, 작은 별에... 아마 장미꽃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겠지? 이따 밤에 하늘을 보면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작은 별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수 (고개 끄덕이다가 턱에 손을 괴고 하늘 쳐다보며) 아, 그렇구나. (삼촌 쳐다보며) 삼촌 우리 이따 밤에 별 구경해요.

민섭 (지수 보며) 그래 이따 밤에 별 구경하자.

민섭,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이들에게 제안을 한다.

민섭 (아이들 번갈아 쳐다보며) 애들아, 우리 나무심기놀이 할까?

지수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무심기놀이요? 나무심기놀이가 뭔데요?

민섭 음, 땅을 파서 나무를 심는 거란다. 이 곳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기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도 좋고 우리도 좋고.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그래서 삼촌은 나무심기놀이가 하고 싶어졌는데... 너희들은 어때?

지수 (신난다는 듯) 좋아요 삼촌.

#42 숲 바깥 길 / 오후

민섭, 아이들을 데리고 나무를 사러 잠시 숲 속을 벗어나 근처 화원으로 향한다.

#43 화원 / 오후

민섭은 아이들과 화원으로 들어가 나무를 고른다. 민섭은 어려서 시골 마을 동네 어귀에 서있던 느티나무를 생각하며 작은 느티나무 묘목을 산다.

#44 숲으로 향하는 길 / 오후

민섭, 나무를 들고 숲을 향해 걷는다. 아이들은 나무 끄트머리를 붙들고 신나게 걷는다.

#45 숲 속 / 오후

아이들과 놀이삼아 땅을 파고 있는 민섭. 그 곳은 주희와의 추억이 깃든 숲이다. 전에 이 숲에서 긴 생머리를 훑날리며 웃고 있던 주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민섭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파놓은 구덩이에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다.

나무를 심은 후 아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민섭. 민섭이 술래다. 아이들, 나무 뒤며 바위 틈

에 숨는다. 민섭이 아이들을 찾자 지수 성수가 번갈아 술래가 된다. 술래인 지수가 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다. 민섭과 성수가 숨을 곳을 찾는다. 그 때 바위 뒤에 숨으려던 성수가 개울 가로 미끌어진다.

#46 개울 가 / 오후

민섭, 놀라 뛰어가 개울 가로 굴러 떨어진 성수를 끌어안는다. 성수, 잠시 의식을 잃고 있다. 민섭, 성수를 흔들며 깨우며 얼른 품에 안는다. 눈을 감고 있던 성수가 민섭에게 안겨 눈을 뜬다. 민섭,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성수를 끌어안고 내려놓을 줄 모른다. 지수도 민섭 곁에 붙어 삼촌을 의지하고 서 있다.

#47 교외선 타러 가는 길 / 노을지는 저녁

숲을 빠져나와 기차를 타러 가는 길. 철길을 따라 길게 노을이 진다. 마치 노을 속으로 철길이 빨려들어가는 듯하다. 아이들 손을 잡은 민섭이 노을을 응시하고 서 있다. 민섭의 눈에서 눈물이 주루루 흐른다. 그 눈물을 뒤로 하고 날아오르는 한 마리 새의 그림자. 그 뒤를 좇기라도 하듯 철길 옆에 피어있던 민들레 꽃씨가 바람에 휩 날아오른다. 눈이 부신 듯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민섭, 스스럼없이 눈물을 훔쳐낸다. 민섭은 날아가는 새를 향해 아이들과 손을 흔든다.

#48 교외선 철길 / 노을지는 저녁

민섭, 아이들과 철길을 따라 걷는다.

#49 기차 안 / 저녁

노을도 어느 덧 사라지고 밤이 어둑해진다. 민섭의 양 옆에 아이들이 민섭에게 머리를 기대고 뺨뺨거리며 깊이 잠들어 있다. 삼촌의 손에 자기 손을 포개고 잠들어 있는 지수. 문득 옛날에 야외 촬영 가던 날 기차에서 손을 잡고 자기에게 기대고 있던 주희가 떠오른다. 지수의 옆 얼굴을 바라보던 민섭의 눈에 지수의 얼굴이 크로즈업 된다. 민섭, 물끄러미 지수를 바라보다 그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다. 민섭, 지수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자기 가슴에 갖다 댄다. 그리고 성수의 손도 끌어다 자기 가슴에 묻는다. 그 작은 고사리손을 외면하고 뿌리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다.

#50 정신병원 앞 / 낮

민섭이 탄 택시가 정신병원 앞에 선다. 택시에서 내린 민섭은 병원을 잠시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병원 안으로 옮긴다.

#51 정신병원 안내 데스크 / 낮

민섭이 안내 데스크에 가서 쪽지를 보여준다. 안내하는 여자가 민섭에게 무어라 말하며 손으로

방향을 가리킨다. 민섭, 그 방향으로 걸어간다.

#52 병실 밖 / 낮

민섭은 병실 바깥에서 잠시 병실 안에 있는 민준을 쳐다보고 서 있다. 병실 안에는 민준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갑자기 7년 전 늦가을밤에 있었던 충격적인 장면이 떠오른다. 이불로 몸을 가린 채 슬프게 울고 있던 주희의 모습이 크로즈업 된다. 문고리를 잡고 있던 민섭은 고통스런 모습으로 서 있다. 문고리를 잡은 민섭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나 잠시 후 민준을 보는 민섭의 눈이 흔들린다. 어린 시절 형과 즐겁게 지내던 시골 마을이 떠오른 것이다.

<자막> 민섭의 어린 시절

#53 시골 마을 입구 / 낮

마을 입구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 서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지나면 개울을 낀 마을이 보인다.

#54 개울가 / 낮

몇몇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놀고 있다. 어느 아이가 어린 민섭을 괴롭힌다. 갑자기 형 민준이 뛰어와 민섭을 괴롭히는 그 아이를 떠밀고 패준다.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슬금슬금 꿈무늬 빠르게 도망친다. 민준이 개울가 바위에 쓰러져 있던 민섭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민섭의 바지를 털어주며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개울가를 떠난다.

#55 병실 앞 / 낮(현재)

병실 안에 멍하고 앉아있는 형을 보고 있던 민섭의 눈에 눈물이 어린다. 민섭,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연다.

#56 병실 안 / 낮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민섭. 그러나 민준은 민섭을 의식하지 못한 채 멍한 시선으로 앉아 있다. 민준 앞에 가서 서는 민섭.

민섭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여) 이게 무슨 꼴이야. 그렇게 사랑하고 탐내던 사람을 손에 넣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았어야지 도대체 이 꼴이 뭐야. (목소리에 힘을 주며) 이 꼴이 뭐냐 말이야. (갑자기 힘빠진 목소리, 거의 독백처럼) 형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냐. 아

니, 그 때 형이 나한테 조금만 미리 주희를 사랑한다고 말해줬음 좋았을 것을...

민준, 히죽거리며 민섭을 쳐다보다 다시 멍한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본다.

민섭 (민준을 잡아 흔들며) 뭐라 말 좀 해봐. 이게 무슨 꼴이냐고...

민준, 여전히 무반응이다. 도리어 천진한 아이처럼 웃고 있다. 그 모습 바라보던 민섭 드디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린다.

민섭 (복받치는 울음을 겨우 참으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기나 해? 형수가 죽었다고. 형수가 죽었던 말이야. 흑흑...

민준, 민섭을 말없이 쳐다본다. 웃음이 가시고 얼굴이 약간 일그러진다.

민섭 (민준의 양 팔을 두 손으로 잡고 마구 흔들며 거의 절규하듯) 제발 정신 좀 차려 봐. 주희가 갔다고. 주희가 저 세상으로 가고 없다고.

민준, 민섭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민섭 형, 허영~ 제발 (말 끝부분을 울리며 소리를 버럭 지른다) 정신 좀 차리라고! (말끝을 흐리며 거의 애원하듯) 형,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봐. 형, 형...

민섭, 형을 잡았던 팔에 힘을 빼며 침대 밑으로 쓰러지듯 주저 앉아 흐느껴 운다. 민준, 말없이 동생을 바라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눈물이 민섭의 손등을 적신다. 민섭, 형을 말없이 한참 바라본다.

민섭 (형의 손을 슬그머니 잡으며) 형, 형... 알았어. 내가 아이들 돌볼게. 형, 사실 나 무서워. 자신도 없고. 그렇지만 형의 아이들, (잠시 말을 멈췄다가) 주희의 아이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 (뚝부러지는 목소리로) 형 생각하면 이 땅에 잠시도 머물고 싶지 않아. (잠시 여운을 주며 말을 더듬듯이) 하 하지만 말야. 나 그 사람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어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아이들, 형의 아이들 말야. 지수 성수. 내가 그 아이들 돌보려고 해. 어린 왕자가 한번 되어보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형 쳐다보고 눈을 똑바로 뜬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가득하다) 대신 형이 건강해질 때까지만이야. 그러니까 얼른 정신 차리고 건강해져서 아이들 아빠로 살아줘. (목소리가 축축히 젖어 있다) 부탁이야. 형

<자막> 20년 후 어느 봄날

#57 숲 속으로 접어드는 길목(처음 씌으로 돌아가서) / 낮

희끗한 머리결을 가진 50대 후반의 민섭과 20대 초반의 지수와 성수가 숲길로 접어든다. 다정한 미소를 주고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밝고 정겹다.

#58 숲 속 / 낮

세 사람은 개울을 지나 커다란 느티나무 앞에 와서 발을 멈춘다. 잠깐 서서 나무를 응시하던 민섭이 홀로 나무 가까이 가서 선다.

민섭 (나무에 손을 얹으며) 잘 있었어? 참 세월이 빨리도 지나가네. 저 아이들 좀 봐. 지수는 어쩔 엄마를 그대로 빼닮았는지... 성수도 정말 의젓하고 멋지지? 처음에는 무척이나 원망도 많이 했어. 어떻게 저 어린 것들을 남겨두고 저만 편하자고 혼자 그리 훌쩍 떠나버렸나 하고 말이야. (잠시 숨을 고른 후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며) 나는 모질지도 차갑지도 못한 바보인가 봐. 이 긴 세월 동안 우리의 깨진 사랑을 조각조각 맞추느라 이렇게 늙어가고 있으니... (잠시 목이 메이는지 말을 잊지 못하다가 차분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사랑은 한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완성해가는 것임을 알게 됐어. (아이들 있는 쪽을 바라보며) 나는 저 아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의 사랑이 세월과 함께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 형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너와의 사랑의 퍼즐을 계속 맞추어 가야. 그래서 형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 그 퍼즐 안에 형도 들어있으니까. 한 때 너의 남편이었으니까. 너를 사랑했던 형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리고 저 아이들의 아빠니까... (다시 나무를 향하여) 계속 지켜봐줘. 내가 얼마나 멋지게 우리의 사랑을 완성해가는지 말이야.

나무를 보며 한참 독백을 하던 민섭이 멋진 숙녀가 되어 있는 지수에게로 걸어가며 말을 건넨다.

민섭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수야, 올해는 푸른 싹이 유난히 더 많은 것 같지 않니?

지수 (나무를 올려다 보며) 그러게요, 삼촌, 올해는 새싹이 더 일찍 나온 거 같아요. (웃으며) 너무 이빠요.

민섭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너희들은 20년 전 이 나무를 심을 때가 기억나니?

지수 물론이죠. (삼촌을 흘깃 쳐다보며) 때만 되면 계속 찾아오는데 무슨 수로 잊어요. (장난끼 섞인 말투로 임금에게 하듯) 어찌 잊을 수가 있겠나이까.

민섭 (미소 띤 얼굴로 고개를 주억거리며) 그래, 생각이 나는구나. (시선을 나무 꼭대기에 두며) 그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즐거워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너희 엄마는 이

나무와 함께 우리 마음으로 이사를 온 거였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성수 바라보며) 안 그러냐 성수야?

성수 (고개를 끄덕이며) 네. 삼촌. 저는 그날 이후 엄마가 삼촌을 저희에게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 대신 삼촌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거구요. 물론 마음 속엔 엄마가 와 있었지만요... 삼촌,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고개를 꾸벅 숙이며)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잘 돌봐주셔서요.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마 엄마도 삼촌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으실 거예요.

민섭, 눈시울이 축축히 젖어든다. 울컥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걸 참느라 괜시리 탄성을 피운다.

민섭 (나무에 다가가 나무 위를 가리키며) 성수야, 저기 저 위 좀 보라. 크게 구멍이 나 있네. 저기 혹시 딱따구리가 집을 짓고 사는 거 아니냐?

성수 (나무를 올려다 보며) 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엄마 품에서 사는 딱따구리네요.

민섭 (같이 올려다 보며) 엄마 품에서 사는 딱따구리라... 음 그럴 듯하군. 나무가 잘 자라서 앞사귀를 무성하게 내니까 새들도 여기와서 집을 짓고 그러는 거겠지. 저기 보라. 저 위에 초록앞사귀들 좀 봐. 어쩜 저리 윤기나고 소담스러운지... (성수 바라보며) 어때? 사랑스럽지?

성수 (약간은 놀리는 말투로) 우리 삼촌 또 시작이시네. 삼촌은 이 나무가 그리도 좋으세요? 여기만 오면 바보 삼촌이 된다니까... (딱딱 끊어서) 바.보.삼.촌. (큰 소리로 웃는다) 하하하

민섭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그래... 내가 바보는 바보지... (양팔을 비긴 옆으로 치켜올리며 큰 소리로 딱딱 끊어서) 나.는. 바.보.다. (호탕하게 웃는다) 하하하.

숲 속에 웃음소리가 잠깐 울려퍼진다. 잠시 후 말을 멈추고 서 있던 민섭이 아이들을 보고 이야기를 꺼낸다.

민섭 (신중한 목소리) 우리 다음엔 아빠도 같이 모시고 올까?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계시니까 모시고 와도 될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지수 (고개를 끄덕이며) 네. 삼촌이 그러자면 그래야지요. 참 다행이에요. 아빠가 그 정도로 좋아지신 거 보면요. (삼촌 쳐다보며) 다 삼촌이 정성을 들인 탓이에요.

성수 (누나 말에 크게 머리를 끄덕이며) 정말이에요 삼촌. 다음엔 아빠도 같이 모시고 와요. 아마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민섭 (아이들 어깨를 양 손으로 감싸 안으며) 그래, 그러자꾸나. (어깨에 손을 올린 채로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능청스럽게) 그런데 말야. 어서 시간이 빨리 가서 손들까지 데리고 오면 엄마가 더 좋아하실 걸...

아이들을 장난끼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는 민섭.

지수 (삼촌의 팔을 툭 치며) 아이, 삼촌도...

민섭 (성수에게 박치기를 하며) 성수야, 내 말이 맞지...

성수 (삼촌에게 놀림 당한 걸 복수라도 하듯 옆구리를 꼭 찌르며) 삼촌 이러기 없어요. 그만 놀리시죠...

민섭, 간지럽다는 듯 웃어제끼며 도망가고 성수는 삼촌을 잡으러 뒤쫓아간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숲 속에 가득 울려퍼진다.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가 포로로 날아와 느티나무 가지에 살포시 내려 앉는다. 그들의 웃음소리에 장단이라도 맞추는 듯 맑은 새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김추산

1959년 서울 출생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재학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시나리오

연애의 시작

김수민

#낮/놀이공원 매표소 앞

'수'는 발 끝으로 바닥을 툭툭 차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긴 목도리를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두르고 손도 주머니 속에서 나올 줄 모르는 그런 추운 겨울 날씨. '수'의 뒤 쪽으로 '창'이 서둘러 뛰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창'의 눈은 별경고 계슴츠레하다.

창: (숨을 헐떡이며 '수'의 팔을 잡아 돌려세운다.) 많이 기다렸어?

수: (아까의 지루한 기색을 지우고 밝은 얼굴로) 아~주~ 많이 기다리진 않았어요.

창: (자기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며) 그럼 들어갈까?

수: ('창'과 같은 모양새로 손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밝으면서도 사무적인 말투로) 가시죠.

둘은 앞뒤로 조금 떨어지게 거리를 두고 놀이공원으로 들어간다.

#낮/놀이공원 안

'수'가 타자는 대로 군소리 없이 놀이기구를 타는 '창'의 모습. '창' 피곤해 보이지만 귀찮아하지는 않는다. 신나서 얼굴이 발그레해진 '수'를 흘끗흘끗 보며 귀엽다는 듯 미소를 짓는다. 계속 '창'과 '수'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여러 놀이기구를 타러 다닌다.

#밤/버스 안

버스 좌석에 나란히 앉은 '수'와 '창'

수: (별건 눈을 비비적거리며) 지금 제 모습에서 익숙한 대리님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아요?

창: (담담하게 앞만 보며) 어. 느껴지지 않아.

수: (입을 삐죽이며 '창'을 바라본다) 아니~ 무슨 크리스마스 이브날 술을 진탕 마셔요?

창: (피식 웃으며 '수'를 바라본다) 크리스이브가 별거인가? 평소랑 똑같이 출근했지. 야근했지...
수: (끼어들며) 술마셨지!

'창' 소리 내 허허 웃으며 다시 앞을 본다. '수'도 '창'에게서 시선을 거두며 조그맣게 하품을 한다.

(시간이 얼마 흐른 듯)

'수' 병든 닭처럼 위태롭게 즐고 있다. '창' 그런 '수'를 보며 난감해한다. '수' 드디어 쿵 소리와 함께 창에 머리를 박고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뜬다. 그러나 이내 다시 게슴츠레해지는 눈. '창' 조심스레 자신의 어깨에 '수'의 머리를 기댄다. '수' 자연스럽게 '창'에게 팔짱을 끼며 그의 오른쪽 어깨 깊숙이 몸을 파묻고는 잠든다. '창' 살짝 당황하면서도 자신의 어깨에 얼굴을 비비적대며 자는 '수'가 귀엽다.

#저녁/회사

'회계장부' 파일을 보며 머리를 긁적이는 '수'에게 다가와 천천히 하라고 다독이는 '창'의 모습

#가로등이 켜진 저녁/퇴근길

'수'와 '창'이 통통한 바나나우유에 빨대를 꽂아 쪽쪽 빨아 먹으며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둘의 앞모습과 뒷모습.

#밤/'수'의 이불 속

이불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처럼 불룩하다. 이불 속 '수'는 속삭이며 통화 중이다. 수화기 너머로 취기가 느껴지는 '창'의 목소리가 들린다.

창: (목소리만) 오늘 회식자리 가관이었대야. 이과장이 팔라 되서는 그만 두겠다고 웃통 벗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어머. 그래서 내일 어쩔라고 그랬대요? 진짜 그만 둘 것도 아니면서?

창: (목소리만) 그러니까 내말이~

키득키득거리는 '수'의 목소리가 이불 밖에서도 선명히 들린다. 옆에서 자던 동생이 시끄러운 듯 눈살을 찌푸리다가 베개를 핵 내던진다.

#주말 낮/영화관 매표소 앞

'수'의 품에는 팝콘. '창'의 손에는 콜라와 영화 티켓이 들려있다 '수' 영화포스터를 가르키며 신나하고 '창'은 그런 '수'를 향해 밝게 웃는다.

#낮/번화가-통유리로 된 의상가게 앞

'수'가 친구 '오양'과 길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 때 의상가게에서 180cm 를 훌쩍 넘는 키의 다부진 체형의 '사내'가 정장을 입고 걸어 나온다.

사내: ('수'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안녕하세요?

수: ('사내'를 향해 살짝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

오양: ('사내'에게 다가가 팔을 살짝 잡으며) 오빠 몇 시쯤 끝나?

사내: 6 시 반 쯤이면 매장일 다 마무리 될 거 같아.

오양: ('사내'에게서 떨어져 '수'에게 팔짱을 끼며) 그래? 알았어. 친구도 저녁은 집에서 먹어야한다니까. 그 때 가서 연락할게.

사내: (미소 지으며) 오케이. 친구 분이랑 재밌게 놀아. ('수'를 향해) 다음에 또 뵈세요.

수: ('사내'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네. 다음에 뵈요.

#낮/'사내'가 일하는 의상가게 건너편-커피숍 2층 창가

창가 자리에 앉아 '사내'가 일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수'와 '오양'. 킁킁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양: ('수'에게 얼굴을 바짝 갖다 대며) 어때? 괜찮지?

수: (눈웃음을 지으며 입에 손을 갖다 대고 속삭이듯) 어 완전. 잘해봐~

오양: (얼굴에 손을 괴며) 그런데 아직 모르겠어. 남자친구랑 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좀 더 지켜볼라고.

수: (킁킁거리며) 좋겠다 좋겠어. 하여간 남자복은 많다니까.

호들갑을 떨며 계속 '사내'의 모습을 지켜보는 '오양'과 '수'

#밤/'수'의 집 베란다

'수' 베개를 꺼안고 베란다 의자에 앉아 있다. 베란다 너머 형형색색 불빛이 가득한 도심이 보이고 핸드폰 진동소리가 들린다. '수'가 진동이 울리는 핸드폰 액정을 보고 미소 짓는다.

수: (전화를 받으며, 귀엽고 앙증맞은 목소리로) 대리님~ 대리님~

창: (목소리만-탁하지 않고 깨끗한 목소리로 '수'의 목소리를 흉내내듯) 수 사원~ 수 사원~

수: (키득키득 웃으며) 퇴근했어요?
 창: (목소리만) 응.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중간중간 바깥의 소음이 들린다.)
 수: 휴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피곤하죠?
 창: (목소리만) 아니야. 남들도 다 하는건데 뭐. 오늘 친구 만났다고 했던가?
 수: 네. 친구랑 친구의 남자친구가 될거 같은 남자분도 만났어요.
 창: (목소리만-황당하다는 투로) 남자친구가 될거 같은 남자는 뭐야?
 수: 뭐냐니요.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잘 만나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진전이 있을거같은?
 창: (목소리만) 잘 만나고 있으면 그걸로 사귀는거 아니야?
 수: 아니죠?! 아직 사귀자는 말은 안했대요.
 창: (목소리만) 아니, 사귀자고 말하지 않으면 사귀는 사이가 아니야?
 수: (어이없다는 투로, 콧방귀를 끼며) 당연하죠. 시작! 스타트선도 안 밟고 어떻게 사겨요?
 창:
 수: 여보세요?
 창: (목소리만)그렇구나.
 수: (자잘한 웃음) 그렇죠.

'수'가 핸드폰을 들고 바라보는 베란다 도심의 불이 많이 꺼졌고, 그래서 하늘의 달과 별이 더 밝게 보인다.

#낮/창'의 자취방

책상에 1 월달 탁상달력이 보이고, 설날 연휴를 클로즈업한다. 그리고 손에 들린 기차표를 클로즈업한다. 기차표의 날짜는 설날 연휴 바로 전날이다. 손이 기차표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쥘다. 액정을 꺾다 꺾다를 반복한다. 액정 배경화면은 '수'의 모습이다. 주저하던 손이 결심한 듯 '1 번'을 꼭 누른다. '수 사원'이라는 글씨가 액정에 뜨고 신호음이 들린다.

수: (목소리만) 여보세요?
 창: (평소와 같은 말투로) 잘 잤어?
 수: (목소리만) 네네~ 대리님도 안녕히 주무셨는지요~?
 창: (미소 지으며) 네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수: (목소리만-웃음소리) 이번 연휴 짱 길쭉. 오랫동안 못 보겠네요. 대리님.
 창: (미소 짓던 얼굴이 약간 경직되며) 그래 그렇겠네.
 수: (목소리만) 고향 내려가면 뭐 해요? 조카들 세뱃돈 주고 해야 하나?
 창: 저 그래서 말이야.
 수: (목소리만) 네?

창: 니가 연휴동안 생각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

수: (목소리만) 뭔대요?

창: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나랑 사귄래?

수:

창: (불안한 눈빛으로) 지금 당장 대답 안 해줘도 돼. 연휴동안...

수: (목소리-까르르한 웃음소리)하하하하하

창: (뭐지? 하는 눈빛이다.)

수: (목소리) 좋아요.

#낮/수'의 방

'수'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창: (목소리) 뭐?

수: (활짝 웃으며) 좋다구요.

#수'와 '창'의 크로스커팅

각자의 방에서 서로 얼굴을 돌려 마주보고 웃는 듯 한 모습으로 마무리.



김수민

1989 년 서울 출생.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과 재학중.
교내 시나리오 동아리 활동중.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진

<시>



오봉옥 (시인)
 <문학의오늘> 발행인
 <시경>, <노릇들>, <문학>, <문학사계>, <문학과 의식> 등 문학잡지 편집위원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위원 남측 편찬위원
 한국작가회의 이사 및 모국어 위원회
 위원장/ 시집 '노랑' '달팽이가 사는 법'
 등



이재무 (시인)
 <현대시학> 주간, <시작> 편집위원
 난고문학상, 편운문학상, 윤동주시상,
 소월시 문학상 수상
 시집 '길 위의 식사' '경쾌한 유랑'
 '오래된 농담' 외 다수

문예창작학과
writing.sdu.ac.kr
 T. 02)2128-3097
 E-mail. writing@sdu.ac.kr

<소설>



이명랑 (소설가)
 종합문학기간지 문학의 오늘 편집위원
 소설 '삼오식당' '구라짱' 외 다수
 대산 창작 기금, 서울문화재단 창작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선정,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작품 수록
 서울시 자기주도형 독서학습지도
 교육멘토링 사업 자문위원
 디지털스토리텔링 학회 자문이사
 SW+인문 포럼 위원



김종광 (소설가)
 소설 '왕자 이우' '야살쟁이록' 등

<시나리오>



백학기 (영화감독, 배우)
 현 전주아시아영화 유치단 단장
 무주산골영화제 부조직위원장
 2014 장편영화 <체어> 감독
 2012 전주국제영화제 경쟁작
 <양코르와트> 제작총지휘

<동화>



임정진 (동화작가)
 1985 문예진흥원 주최
 마로니에여성백일장 동화부문 장원
 1988 계몽아동문학상 동극부문 수상
 2012 <바우덕이> 한국아동문학상 수상
 2013 <겹쟁이 늑대 칸>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
 2013 SDU 1 학기 강의우수교원으로 선정

<방송대본>



정숙 (방송작가)
 <유머 1 번지> <슈퍼선데이>
 <코미디세상만사> <가족오락관>/
 <행복을 만들어드립니다>
 <코미디하이웨이> <미니시리즈-도시로
 간 참새> <kbs 코미디대상> 등 다수

<수필>



임헌영 (수필가, 평론가)

한국평론가협회 회장,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산문>편집인, 계간 <서시>,
<한국문학평론>, <한길문학>주간
세계한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한국문학평화포럼 회장
편운문학상, 한국문학 작가상
저서 '불확실시대의 문학' '대화' 등



김중완 (수필가)

'에세이스트' 발행인
저서 '수필 들여다보기' 등



황승문(수필가,시인)

1971년 『문학』지에 시 「피뢰침」이
당선되어 등단.
1972년 처녀시집 『조선소』발행.
1986년 - 2012년 선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인문학부장,
인문대학 장, 명예교수 역임.



최호빈(시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졸업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석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 수료

<평론>



이경철 (문학평론가)

동국대학교 교수, '불교문예' 주간
문학과 문화를 사랑하는 모임 부이사장
중앙일보 문화부장, 문화전문기자



유성호 (문학평론가)

한양대학교 교수
현 국제어문학회 이사.
계간「문학수첩」편집주간,「시작」,
「서정시학」편집위원
저서 '문학에 이르는 길' 외 다수



방민호 (문학평론가)

서울대학교 교수
1996~1998 실천문학 편집위원
2005~2011 서정시학 편집위원
한국현대문학회 연구이사
2007~2011 계간 아시아 편집위원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편입학 문의
Tel. 1644-0982
www.sdu.ac.kr

문예창작학과
writing.sdu.ac.kr
T. 02)2128-3097

E-mail. writing@sdu.ac.kr



비교하면 할수록!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01. 대한민국 Only One!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는 국내 문창과 중 최고의 재학생수를 자랑합니다. 또한 매년 십여명 이상씩 문단에 등단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어 문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2. 국내 최고의 교수진!

SDU 문예창작학과 교수님들은 현재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명작가로, 창작지도에 강하고, 유수의 문예지와 관련을 맺고 있어 학생들의 문단데뷔를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03. 1:1 창작지도 동아리 운영!

시, 소설, 수필, 동화, 방송대본 및 시나리오 등 담당교수의 지도아래 동아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학생들의 작품을 1:1로 철저히 지도하여 학생들의 문단데뷔를 돕습니다.

04. 학교생활 만족도 1위!

창작실제 중심의 실질적인 강의, 유명 문학지로의 높은 등단을, 교수진 및 선후배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는 항상 학교생활 만족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